

## 7 이해관계자 간담회 결과 보고서

###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요

#### ● 목적

-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노사단체와 공익위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과의 소통 강화

#### ● 근거

- 「최저임금법」제18조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27조

#### ● 참석자

- 각 단체별 관계자 및 공익위원(사무국 직원 등 배석)

#### ● 세부내용

- 기간: '21.4.27.~'21.5.4.
- 참여 단체: 부산○○○○○ 등 6개 단체

구분	단체명	참석자 (공익위원)	일시	방식
근로자 단체	부산○○○○○	6	4.27.(화) 14:00	비대면
사용자 단체	○○○○○○○○대리점연합	6	4.27.(화) 10:00	비대면
근로자 단체	전국○○○○노동조합연맹	5	4.28.(수) 10:00	비대면
사용자 단체	○○○○협회	4	4.28.(수) 14:00	비대면
근로자 단체	광주광역시○○○○지원센터	5	5.4.(화) 10:00	비대면
사용자 단체	광주○○○○○	6	5.4.(화) 14:00	비대면



## 부산○○○○○(근로자단체)

### ■ 일시 · 장소

'21.4.27.(화) 14:00 ~ 15:00, 영상회의\*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 참석자

단체 관계자 2명, 공익위원 6명

(양○○, 권○○, 전○○, 이○○, 신○○, 노○○)

### ■ 간담회 주요 내용(구체적인 면담내용은 첨부 참조)

#### ○ 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됨

####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해지고, 근로자의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초단시간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음.

#### ○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을 낮춘다는 것으로 이해됨. 지역별 적용은 사업장 철수, 사업주의 채용 포기 등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 반대함.

#### ○ 2022년 최저임금

– 물가수준 고려하면 1.1만 원 정도 올라야 함.



## 간담회 면담내용

Q

### 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

- 1시간 시급으로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임. 월급으로 따지면 세금 빼고 150~160만 원 수준인데, 집, 차, 여가활동은 고사하고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됨. 휴게시간도 반납하고 그 시간을 돈으로 받고 있음.

Q

### 부산○○○○○의 구성은?

- 대학생, 중소기업 · 공기업 근무자, 프리랜서 등 다양함. 일하면서 창업 준비나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도 많음.

Q

### 부산지역의 경제 상황은?

-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드러남. 장사가 안돼 계약 만료로 해고가 많았지만, 올해는 안정적인.

Q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경기가 회복되었나?

-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소상공인은 힘들었는데,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많이 힘들어함.



**Q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면 최저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 임금은 몇십만 원이지만 임대료는 몇백만 원이다.

**Q 집합금지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함.

**Q 코로나19가 식당, 술집 같은 서비스에 미친 영향은?**

- 배달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되었다고 생각함. 배달로 얼마나 수익을 남기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음.

**Q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입장은?**

-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을 낮춘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적용은 어려울 것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상황임.

**Q 2022년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올라야 하나?**

-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1.1만 원 정도 올라야 함. 생산과 소비 중에 생산은 받쳐 주지만, 소비는 그렇지 못함. 최저임금이 올라야 경기가 부양됨.

**Q 지역별 구분 적용에 대한 의견은?**

- 사업장 철수, 사업주의 채용 포기 등 부작용이 많을 것임.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도입도 고려해야 함.

**Q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 등의 변화?**

- 노동강도가 갈수록 심해짐. 사람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오른다고 사람을 자르지는 않음. 하지만 주휴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음.

**Q 부산지역에서 수렴한 의견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실업급여 상담이 주로 들어옴. 최저임금은 대체로 주는 것 같음.

**Q 부산 청년들 상황은?**

- 부산은 주거는 비싸지 않지만 공기업 빼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음. 일자리 구하기 위해 서울로, 집을 구하기 위해 부산 외곽으로 많이 빠짐.

**Q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 최저임금을 넘어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까지 해야 함. 부산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걱정됨. 그들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해야 함.

## Q 최저임금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

-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부동산 등 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음. 부자가 되려면 눈 감았을 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정설이면 말이 안되는 사회임. 성실한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사회가 됨. 그런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하며, 어느 직종이든, 일이 쉽고 어렵건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함. 이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람.



## ○○○○○○○○대리점연합(사용자단체)

### ■ 일시 · 장소

'21.4.27.(화) 10:00 ~ 11:10, 영상회의\*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 참석자

단체 관계자 2명, 공익위원 6명

(양○○, 권○○, 전○○, 이○○, 신○○, 노○○)

### ■ 간담회 주요 내용(구체적인 면담내용은 첨부 참조)

####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

- 30년 동안 택배비는 인상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음. 택배비도 물가 인상을만큼은 인상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도 물가인상을만큼 올라야 한다고 생각함.

#### ○ 업종별 구분 적용

- 산업별로 나눠서 가는 게 맞다고 봄.

#### ○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지불능력의 범위내에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인상해야 되는 기준을 정해서 논쟁 없이 원활하게 최저임금이 정해졌으면 좋겠음.



## 간담회 면담내용

### Q 코로나19로 인해 물류업계가 호황인데 근무환경이 좋아졌는지?

- 외부에서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 물량이 늘어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쿠팡과 같은 업체 증가로(구매·배송까지 모두 취급) 전형적인 택배사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않고, 일이 늘어나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님.

### Q 택배 관련 고용 현황은?

- 택배 현장에도 택배기사 외에 상하차, 분류작업 등 아르바이트가 많음. 전국 300개 서브터미널에 상하차 아르바이트 하루 몇만 명, 분류 아르바이트 6천 명 이상 됨. 그 외 택배대리점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도 상당히 많음.

### Q 최저임금 인상이 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은?

-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은 실제 시급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시급이 올라가면 요구수준도 같이 높아짐. 하지만, 택배기사보다는 분류인력에 대한 비용 문제가 더 고민임. 분류인력은 4대 보험 적용,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6시간 내지 7시간만 근무를 시켜도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됨.

### Q 분류비용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는지?

- 대리점당 15명 정도의 택배기사와 계약관계가 있고, 택배기사 5명당 1명의

분류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1명당 200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볼 때 3~4명의 분류인력을 쓰면 6~700만 원의 새로운 비용이 발생함.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기구에서 올해 초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실제 현장에서 택배대리점이 분류인력을 고용하고 비용은 택배사와 택배대리점이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고 있음.

### Q 작업시간과 임금수준은 어떤지?

- 허브터미널에서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후 2시까지, 서브터미널에서는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근무함. 대체적으로 택배업계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데, 시간당 9천 원 정도 됨. 하지만 성수기 등에는 시간당 3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음.

### Q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는?

- 30년 동안 택배비는 인상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음. 택배비도 물가인상을 만큼은 인상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도 물가인상만큼 올라야 한다고 생각함.

### Q 택배가 수혜업종이라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

- 택배가 늘었다고 해서 택배기사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정도는 아님. 택배산업은 매년 10%~15% 정도 성장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약 15% 정도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임. 이미 한 달 전부터 물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의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음. 일반인들은 택배 물량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풀필먼트 서비스\*가 증가한 것이지 택배 물량이 증가한 것은 아님.

\* 풀필먼트 서비스(Fulfillment Service):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물류 전문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교환·환불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

### Q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는지?

- 분류비용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되어 택배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임금 인상에 대한 여력은 없음.

### Q 택배 가격 및 수수료는?

- 평균 2,200원 정도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2,500원 정도임. 올해 조금 인상해서 3,000원 정도 이야기도 하고 있음. 택배비가 2,500원 이면 집하기사가 600원, 배달기사 800원을 가져감. 택배 대리점주는 그 1,400원 중에서 10%인 140원을 가져감. 그 수익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분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어려워하는 점주들이 많음.

### Q 노사 관계는 어떤지?

- 택배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한국노총 연대노조와 203개 대리점이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 중이고, 153개 대리점은 본교섭 절차 진행중임. 연합회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인 일선 대리점이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이며, 연합회에서는 교섭위원 추천, 교섭위원 섭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다만, 택배기사는 근로자는 아님. 아직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위수탁 관계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일 뿐임.

### Q 이슈가 되고 있는 교섭내용은?

- 분류 관련 문제, 조기 출차, 배송지연, 토요 휴무, 개선상품(포장지침위반 및 판가오적용) 등의 이슈가 있음.

### Q 분류인력 구성은?

- 방학 때는 주로 대학생, 최근에는 주부 등 3~40대 여성도 많음. 일부 지역에는 노년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음.

### Q 7월부터 택배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기사들의 반응은?

- 보험료율이 1.4%로 결정되면서 노사가 50%씩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한 관심이 많음.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에도 관심이 많음. 일부는 사업하려고 사업자등록증도 냈는데 노동자라고 고용 보험료도 내라고 한다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음. 임금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수입에 대한 매출로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택배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른 택배회사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우려도 없고, 본인의 소득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 그래서 요사이 택배기사들은 사회적합의기구가 만들어진 게 과연 우리를 위한 것 이냐, 아니면 정부가 고용 창출도 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짐. 왜냐하면 택배기사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에서 직장 가입으로 자동으로 넘어 오면서 매출이 노출될 것이며 이는 세수로 연결될 것임.또한,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 현재

택배기사 약 5.5~6만 명을 1~1.5만 명 늘리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음. 택배기사들은 결과적으로는 얻은 거 하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 Q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입장은?

- 산업별로 나눠서 가는 게 맞다고 봄.

### Q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은?

-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인상 기준을 정해서 논쟁 없이 원활하게 최저임금이 정해졌으면 좋겠음.

## 💡 전국○○○○노동조합연맹(근로자단체)

### ■ 일시·장소

'21.4.28.(수) 10:00 ~ 11:00, 영상회의\*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 참석자

단체 관계자 3명, 공익위원 5명

(양○○, 이○○, 오○○, 신○○, 노○○)

### ■ 간담회 주요 내용(구체적인 면담내용은 첨부 참조)

#### ○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한 의견과 내년 희망 인상률

- 낮은 수준은 맞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었다고 봄. 내년도 최저임금은 5~10% 정도는 인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함

#### ○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 일부에서 구분 적용 얘기가 있지만 소수의견임. 연맹뿐만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가 반대함. 구분 적용을 하게 되면 업종별·지역별 고착화가 우려됨.

#### ○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라는 점

- 소신과 적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구분에 대한 연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등 꾸준한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았으면 좋겠음.



## 간담회 면담내용

### Q 전국 ○○○○노동조합연맹 소개

- 1953년 설립, 회원수 9,000여명, 상근직원 4명, 위원장은 오○○, 소재지 강서구 ○○동, 예산 4억5천만 원, 주요사업 면방(방직·방적), 화학 섬유, 의류·유통, 직물·염공, 모방사, 주요 종사 직종은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등, 회원사 64개 중 제조업 60개, 도·소매업 2개, 서비스업 1개, 기타 1개임.

### Q 요새 섬유산업은 어떤지?

- 보통사람들은 섬유산업을 하향세로 생각하지만 첨단섬유개발 등 성장기치가 높음. 섬유산업은 뿌리산업이며,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방직공장은 중국 때문에 어렵지만, 화학섬유산업은 기간산업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역수입되는 경우도 많아 매출은 조단위 이면서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곳들도 있는데 노조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고민임. 직물, 염색 분야는 특히 취약하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할 때마다 주시하고 있음.

### Q 섬유산업 종사 노동자의 급여와 처우, 코로나19의 영향은?

- 2018년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는 섬유업체의 90% 이상이 영향을 받음. 그 이후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최저임금 인상에 크게 영향이 없음.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우리는 조직노동자이다 보니 근로시간, 고용 등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고, 올해 임금도 충분히 오를 것으로 예상함.

### Q 근로시간은?

- 주52시간 이내로 하고 있음.

### Q 최근 5년간 매출 추세, 코로나19가 올해 근로시간, 고용,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 최근 5년간 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회원사가 22.2%이고,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55.5%임. 고용 관련해서는 58.6%는 크게 변화 없을 것이다, 37.9%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함. 임금 관련해서는 37.9%가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고 했고,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도 37.9%임. 영세사업장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다운스트림 업종은 어느 정도 괜찮음.

### Q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내년에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 최저임금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회하는 사람에게도 지대한 역할.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의 역할을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반 근로자들의 인상을 에도 적용됨. 최근 인상수준,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5~10%는 정도는 인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함.

### Q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

- 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함. 특정 면방직 업종에서 구분 적용 얘기가 있지만 소수의견임. 연맹뿐만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가 반대함.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인건비에 의존하는데,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꼴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일본 정도만 적용하고 다른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방직업종은 임금이 낮아 신규인력이 없어 정년 연장, 촉탁직을 활용하고, 경기북부도 임금이 너무 낮아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함. 구분 적용을 하게 되면 지역별, 업종별 고착화가 우려됨.

### Q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 2018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2019년 자체 조사 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았음. 그 이후로 잘 지켜지고 있음. 조직화가 되어 있는 데는 감시 기능이 있어 괜찮은데, 경기북부 등 외국인과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비조직 사업장은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 Q 화학섬유쪽은 괜찮고 나머지는 사양산업인가?

- 섬유산업은 방직, 화학섬유 등 원료를 생산하는 장치산업 위주의 다운스트림, 염색 등의 미들스트림, 의류, 봉제, 유통 등의 업스트림으로 나뉨. 조합원 기준 화학섬유가 30%이며, 우리 조직 대부분이 다운스트림임. 섬유기업 중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다운스트림이며, 미들스트림은 영세하고 비조직화 되어 있음.

### Q 올해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한 의견은?

- 낮은 수준은 맞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었다고 봄.

### Q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받나?

- 대기업도 방직이나 방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임. 한국노총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10%를 제시해도 우리는 지불능력이 낮아 1.5% 낮춰서 8.5%로 함.

### Q 섬유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이 낮고 고령화 되어 있어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은지?

- 재취업을 통해 현장 투입은 쉽지 않음. 노동 강도 등 재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함. 특히, 방직과 같이 실을 취급하는 곳은 눈이 침침하면 안전사고에 치명적일 수 있음.

### Q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고용상황에 영향이 없는 것은 인력부족 때문인가?

- 3D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사람들이 안 옴. 영세민이 많이 사는 동네이지만 구인광고를 해도 섬유 업종보다 임금이 낮은 백화점으로 가지 여기는 안 옴.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에 어려움이 있음.

### Q 귀 단체는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회사 사정은?

- 재무구조가 튼튼해서 부채는 없지만 최근 3년 동안 500억 규모의 적자를 기록함.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흑자를 보여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함.

### Q 최저임금이 매년 5~10%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 올해 5~10% 인상을 얘기한 것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안 올라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을 따져 봤을 때 9천원 대는 되어 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임. 그 이후 상황은 그 때 봐야 알겠지만, 매년 그렇게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길 바라는 이기적인 집단은 아님. 내수 시장이 살아야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함.

### Q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라는 점?

- 예전엔 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등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음. 또한, 특정 단체에 휘둘리는 느낌도 받았음. 소신과 적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최저임금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최저임금의 업종, 지역별 구분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았으면 좋겠음. 노동자들이 회사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도 하고 다양하게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많이 받음. 또한, 예전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보았지만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국 사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음. 최저임금 결정 시 고민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림

### 💡 ○○○○ 협회(사용자단체)

#### ■ 일시 · 장소

'21.4.28.(수) 14:00 ~ 15:10, 영상회의\*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 참석자

단체 관계자 3명, 공익위원 4명(양○○, 이○○, 신○○, 노○○)

#### ■ 간담회 주요 내용(구체적인 면담내용은 첨부 참조)

##### ○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한 의견과 내년 희망 인상률

-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트 업계가 많이 어려움. 올해 최저임금은 적정하다고 보나, 내년 최저임금은 경기침체 · 소비위축 ·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결하고, 그 인상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음.

##### ○ 업종별 구분 적용

- 마트업종은 환경이 열악하여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임.

##### ○ 지역별 구분 적용

- 지역별로 경영여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음. 그만큼 여러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구분 적용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함.





## 간담회 면담내용

### Q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올해 매출 및 고용은?

- 마트는 고용이 많은 업종이고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나,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면서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움. 매출과 고용 모두 20% 정도 감소하였음.

### Q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준비는?

- 우리 협회의 회원사가 5,400여개소, 회원사별 고용인력이 평균 35명임. 올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대부분 회원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 Q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 대한 의견과 내년 희망 인상률은?

-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함. 다만,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트업계가 많이 어려움. 올해 최저임금은 적정하다고 보나, 내년 최저임금은 경기침체·소비위축·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결하고, 그 인상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 외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특히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Q ○○○○협회 회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나?

- 마트업종은 구인이 어려워 최저임금 120%인 시급 1만 원 이상 지급함.

### Q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의견은?

-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마트업종은 환경이 열악하여 같은 임금을 받고는 이곳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임.

### Q 지역별 구분 적용에 대한 입장은?

- 지역별로 경영여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음. 그만큼 여러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구분 적용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함.

### Q 마트종사자의 식사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은 인근 식당 쿠폰을 제공하고 있음. 점심시간 1시간도 잘 보장해 주고 있음.

**Q**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에 대한 입장은?

- 호주 등 임대료를 50%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건물주가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이자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임. 집합제한업종의 임대료를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입법화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움.

**Q** 마트업종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상카드수수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0.5%라도 인하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Q**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우리 업종은 구인이 어려운 업종이라 잘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잘 되어 있으므로 다른 업종에서도 잘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례는?

- 고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청년, 장년, 장애인 등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 기존에 받는 것에서 추가로 받는 것이 없어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회원사들이 별로 없음. 또한, 마트 업계의 특성상 폐업을 늦출수록 그 손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금 받으면서 휴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음.

**Q** 배달은 많이 하는지?

- 배달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배송은 근거리에서 최대 무기였는데, 온라인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임.

**Q** 배송 시 운송 수단은?

- 식당 배송이 많아 양이 많고, 무·배추 등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해서 0.5톤 다마스를 주로 이용함. 차가 크면 골목길을 다니기도 불편함. 가끔 오토바이도 이용함.

**Q** 배송원은 직접 고용하는지?

- 약 90%를 직접 고용함. 외주를 주면 효율이 낮고, 고객센터의 질이 떨어짐. 임금 330~360만 원,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차량당 500~550만 원이 들어감.

**Q** 마트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력구성의 변화가 있는지?

- 활동량이 많고 중량을 다뤄야 하는 일이라 남성이 70% 정도 됨. 계산원, 섬세함이 필요한 진열일, 포장, 패킹일 등은 주로 여성이 함. 환경이 열악한 3D업종이라 청년이 선호하지는 않으며 중장년 특히 60대 이상의 장년이 많음. 고용이 어려운 업종이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변화는 거의 없음.

**Q**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감 등 차등적용 사례에 대한 의견은?

-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는 상황에서 고령자도 쉽게 일자리를 찾고, 사업주도 고령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특히, 마트 업종은 오래 같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손은 느리지만 대부분 성실하고, 한번 숙련이 되면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음.

**Q**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영향은?

- 2018, 2019년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상계 수준으로 생각함.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었음.

**Q**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 지급한 것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었는지?

- 마트는 재난지원금의 대표 수혜 업종으로 매출이 증가했음. 다만, 마트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올 1분기 매출은 감소함.

**Q**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은?

- 지역화폐는 중소마트에서 환영함. 대형마트에 갈 소비자를 중소마트로 오게 하는 효과가 있음. 다만,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가 연매출 10억 이하의 마트로 사용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줄어들었음. 서울 제로페이처럼 전체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봄.

**Q** 대형마트와 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중 어느 쪽이 더 힘든지?

- 경쟁은 상대마다 특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기는 힘들. 밤잠을 줄이고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대형마트와 경쟁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시장에서 통함. 하지만, 온라인은 다른 개념임. 상품의 가격경쟁력 만으로는 감당이 안 됨. 온라인 소비를 하는 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다른 방식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어려워하고 있음.

**Q** 인력 채용 시 대형마트, 지역 SSM과 경쟁하는지?

- 우리 급여수준이 높지만, SSM은 의무 휴무일이 있음. 급여수준을 우선시 하는 분들은 저희에게 오고, 좀 더 깔끔하고 휴일 보장을 원하면 대형마트나 SSM으로 갈 것임.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 중소마트는 온라인이 할 수 없는 동네주민의 식품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었으면 하며, 제도적으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함. 중소마트 없이 대형마트만 있었으면 물가가 많이 올랐을 것임. 마트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도전과 땀의 정신으로 10~30년 동안 업력을 쌓아오신 분들임. 2000년대 대기업 유통업체가 들어올 때 모두 어려웠지만, 새벽시장이나 산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오랫동안 쌓은 업무 노하우를 통해 야채, 과일, 정육 등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공급해 주면서 살아남았음. 그들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강한 자생력을 바탕으로 근면과 성실로 밤잠을 줄이며 은행 대출을 받아 평수도 늘리고 고용도 늘린

것인데, 일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자금을 받아 성장한 것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느낌.

- 대대적으로 전개한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도 우리만 내린 것이 아니라 600만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도 함께 내림.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 때도 회원사들은 일본산 담배, 맥주, 식료품을 매대에서 내려 재고를 꺼안으면서까지 동참 하였음. 상인들은 자기 이익만 취한다는 건 사람들의 편견임. 중소기업들도 국가를 위해서 함께 뭉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을과 병이 서로 싸우지 않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함.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상인들을 위한 단체로 인식해 주기 바람



## 광주광역시○○○○지원센터(근로자단체)

### ■ 일시 · 장소

'21.5.4.(화) 10:00 ~ 11:10, 영상회의\*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 참석자

단체 관계자 1명, 공익위원 5명(박○○, 양○○, 전○○, 이○○, 신○○)

### ■ 간담회 주요 내용(구체적인 면담내용은 첨부 참조)

#### ○ 최저임금 기대수준

- 최저임금은 사람의 권리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출발점으로 10,000원은 되어야 함.

#### ○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 구분 적용은 좁은 한국사회에 차별,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것임. 다만,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업종별 구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다만,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같은 편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되어야 함.

#### ○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라는 점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 관련 조사를 수행하여, 최저 임금 논의 전에 전국적인 경제 상황, 바라는 점 등 통계를 통한 기본 시사점을 찾아야 함.



## 간담회 면담내용

### Q 코로나19가 광주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셔틀버스 운전기사, 요양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음. 제조업 상황은 나쁘지 않음.

### Q 최저임금 준수율은?

- 편의점이 60%, 아파트 경비·청소업 85%, 제조업 90% 미만, 주유소 100%, 평균 75~80%임. 최저임금 준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Q 최저임금 준수 방법?

-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지고, 지자체의 노력으로 편의점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4년전 30% 후반에서 60%까지 올라감. 최저임금에 대한 계도, 홍보 등이 준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함.

### Q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야 하나?

- 최저임금은 사람의 권리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출발점으로 10,000원은 되어야 함. 다만, 노년층,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음.

### Q 내년 최저임금 예상은?

-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의 흐름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기보다는 물가인상률에 맞춘 9,000~9,500원에 맞춰질 것 같음.

### Q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는지?

-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코로나19가 더 큰 영향을 줌.

### Q 업종별/지역별 구분에 대한 입장은?

- 좁은 한국사회에 차별,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것임. 다만,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업종별 구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일이 힘든 업종과 덜 힘든 업종 사이의 임금차이가 없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업종별 구분 적용은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같은 편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되어야 함.

### Q 생활임금에 대한 의견은?

- 광주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생활임금을 정함. 올해 생활임금은 10,500원임. 민간부분이나 중앙정부 매칭 사업은 생활임금이 미적용됨. 같은 공공부분 사업이라도 이런 이유로 인해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함.

### Q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은 잘못된 것임. 반면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빨리 시행되어야 함.
- 전국에 ○○○○지원센터 네트워크가 있음. 작년에 전국 단위로 최저임금 관련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인력, 비용,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함. 이를 최임위에서 수행하여, 최저임금 논의 전에 전국적인 경제상황, 바라는 점 등 통계를 통한 기본 시사점을 찾아야 함.

### 💡 광주○○○○○(사용자단체)

#### ■ 일시·장소

'21.5.4.(화) 14:00 ~ 15:20, 영상회의\*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 참석자

단체 관계자 5명, 공익위원 6명

(박○○, 양○○, 권○○, 전○○, 이○○, 신○○)

#### ■ 간담회 주요 내용(구체적인 면담내용은 첨부 참조)

##### ○ 최저임금 기대수준

- 올해와 같은 수준인 인상을 1.5%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음.
- 원자재가격 인상 및 수급의 어려움, 휴일 유급 보장에 대한 부담 등으로 올해는 동결로 가는 것이 좋겠음.

##### ○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주어야 함.
-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면 낙인효과가 있고, 지역 불균형이 심해짐. 지역별 차등 적용보다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먼저 해야 함.

##### ○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라는 점

-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노사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로 움직여야 함.



## 간담회 면담내용

### Q 올해 경영 환경은?

- 코로나19 이후,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큼.

### Q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선에서 정해졌으면 좋겠는지?

- 올해와 같은 수준인 인상률 1.5%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음.
- 원자재가격 인상 및 수급의 어려움, 휴일 유급 보장에 대한 부담 등으로 올해는 동결로 가는 것이 좋겠음.

### Q 내년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은지?

- 최저임금 인상률 3~5%(8,981~9,156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 같음.
- 150~180원(1.72~2.06%) 인상을 예측하는데 200원 이상 인상되면 기업 운영이 어려울 것임.
- 8,000원 후반대를 고려해 본 적은 있음.

### Q 광주지역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어떤지?

- 재작년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임금의 80~90% 정도임.

### Q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에 대한 의견은?

-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주어야 함.
-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면 낙인효과가 있고, 지역 불균형이 심해짐. 지역별 차등 적용보다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먼저 해야 함. 시범적으로 2~3개 업종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함.

### Q 최저임금 관련 애로사항은?

-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신입직원과 숙련공의 임금 차이가 없음. 따라서,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 채용을 선호하게 됨. 하지만,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숙련근로자의 불평·불만이 높아짐.
- 제조업에서 근로자를 숙련시키는 데 1년이 필요함. 그 기간은 월급을 주면서 가르치는 것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부담스러움. 또한, 제조업은 특성상 4~5개월 동안 업무량이 집중되는데, 높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얼마다 노동의 강도가 다른데 최저임금을 똑같이 주어야 하는가 고민임.

### Q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은?

-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최저임금이 오르지 말아야 함. 또한,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함.
-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노사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로 움직여야 함.

## 8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

### (주)○○금속

#### ■ 사업장 개요

##### ○ 일반 현황(전체)

업체명	(주)○○금속	대표자	서○○
설립일자	19○○.○○.○○	주요업종	주물제조업
노조유무	무	생산품목	의료기부품소재 호이스트부품소재외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		

##### ○ 근로자 현황 (전체)

(단위: 명)

모든 근로자	합계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영업직 등
총 근로자수	20	4	15	1
여성근로자수	2	1	1	—
정규직	20	4	15	1
비정규직	—	—	—	—
고령자(만55세이상)	12	2	9	1
외국인 근로자	6	—	6	—

##### ○ 임금인상 현황

- 임금인상시기: 매년 1월
- 최근 4년간 임금인상률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임금 인상률	2.6	3.3	2.7	9

####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21.6.1.(화) 13:30~15:30

##### ○ 참석위원(9명)

- 공익위원(4명): 노○○, 양○○, 이○○, 이○○
- 사용자위원(3명): 김○○, 이○○, 하○○
- 근로자위원(2명): 김○○, 홍○○(대참)
- \* 배석: 이○○, 남○○

##### ○ 면담자(2명)

- 사용자(1명): 대표이사 서○○
- 근로자(1명): 근로자 이○○





## 면담내용



## 사 용 자

## Q. 기업일반 현황

- 주물제조업체로 의료기 부품(45%)과 호이스트 부품(25%)을 주로 생산함. 한때 연매출이 38억이었으나 근로일수 감소(월 30일→20일)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력감소로 현재 연매출액은 24~26억 수준임. 월 평균 임금은 330만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편임.

## Q. (공익위원) 올해 매출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지?

- 작년 매출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Q.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급여수준은 어떤지?

- 식비 포함하여 최저임금 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하지만,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Q. (공익위원) 주물산업의 경기전망은 어떤지?

- 중국과의 단가 경쟁에서 밀려 어려운 형편임. 근래 중국의 단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떨어진 소재 단가를 가공 작업을 통해 만회하면서 단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Q.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을 감안하여 납품단가가 인상된 적이 있는지?

- 최저임금의 큰 폭의 인상으로 납품단가가 18년 인상되었지만 19년은 유지되는 등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납품단가가 100% 인상되지는 않음. 계속된 실질 납품단가의 연속적인 하락으로 단가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경기상황으로 단가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IMF 이후에 납품단가 조정 10번 중 7번 정도는 구매처의 요구로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이유로 단가가 떨어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직원의 급여 인상, 직원복지 등은 요원한 상태임. 실질 납품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음.

## Q. (사용자위원)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어떤지?

- 원자재가가 50~100% 인상되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며, 대출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음.

## Q. (사용자위원) 외국인근로자가 더 필요한지?

- 내국인이 더 좋긴 하지만 급여가 낮아 구하기가 힘들. 그렇다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외국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Q. (근로자위원) 올해 근로자 2명을 신규채용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임. 일이 힘들고 급여가 적어 젊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 그러다보니 고령자의 비중이 높음.

**Q. (근로자위원)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지?**

-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다만, 주 52시간제가 올 7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방법이 없음.

**Q. (근로자위원) 납품단가는 언제 인상되는지?**

- 원자재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언론 등에서 다뤄질 때나 인상됨. 인건비 인상도 요인이긴 하지만 원자재값이 인상되어야 함.

**Q. (근로자위원) 필요한 정부지원이 있는지?**

- 정부지원을 받고 싶지만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못 받는 경우가 많음. 제약 조건 없이 무료지원이 되어 하며, 제도가 단순화 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함.

**Q. (공익위원) 근로시간 감소와 인력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인력이 감소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 실질 납품단가의 하락으로 인력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8년에

많이 감소하였음. 납품단가가 낮다 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람을 줄이고, 남은 인력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임.

**Q. (공익위원) 원자재가 상승, 납품단가 인하 등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큼. 인건비도 영향이 있지만 납품 단가가 올라갈 수 있으면, 인건비 인상은 부차적인 문제임.

**Q. (공익위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Q. (사용자위원) 내년도 매출액 전망은 어떻게 하는지?**

- 2020년 매출이 전년 보다 많이 줄었는데 올해도 더 줄 것으로 보임. 만약, 경기가 풀려 원청이 좋아진다면 우리에게는 약 6개월~1년 정도 걸림. 내년에도 올해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함.

**Q. (사용자위원) 원청입장에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원청도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의료부품과 호이스트부품이 주된 품목인데 의료부품을 납품받는 회사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단가도 그나마 괜찮음. 호이스트부품을 납품받는 회사는 조그마한

공장도 있고 큰 공장도 있는데 단가가 바닥임. 중국하고 경쟁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가 인상되면 좋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경영상 부담이 되었음.

**Q. (사용자위원) 납품단가가 인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 원가 측면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납품단가,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인건비로 인한 어려움이 큼. 2018년에 인력이 대폭 감소한 것은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 큼.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것은 수월함.

**Q. (사용자위원)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어떤지?**

- 내국인보다 낮다고 생각함.



**근로자**

**Q. (사용자위원) 회사 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낮추어 회사 인원이 감소되었음.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상황임.

**Q.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전반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5~10%가 적정하다고 생각함.

**Q. (사용자위원)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5~10%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계속 인하하고 있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함. 또한 일감은 한정되어 있고, 경쟁업체도 많아 어렵지만 최소 5%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Q. (근로자위원) 연장근로는 많이 하는지?**

- 하루 3~3.5시간 하고 있음. 연장근로를 해야 생계 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까 걱정임

**Q. (근로자위원)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생계유지 및 노후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 250만원은 넘어야 함. 1년 수입으로 3년 노후를 준비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 사 용 자

### 설문 항목

해당항목에 "v"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일반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8,720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822,480원/월 209시간 기준)
- 감액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7,848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640,232원/월 209시간 기준)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 1. 2021년도의 신규 채용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신규채용이 있었다 : 2명  
□ 신규채용이 없었다

### 2. 2021년도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최저임금 수준(그 이하 포함)으로 고용했다 : \_\_\_\_명  
■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으로 고용했다 : 2명

### 3. 지난해와 비교하여 최근 경영상황은 어떻습니까?

- 매우 좋아지고 있다    □ 좋아지고 있다    □ 보통이다  
■ 나빠지고 있다    □ 매우 나빠지고 있다

### 4. 경영상황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 적다

### 5.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다음의 각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크게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크게 감소	해당 없음
● 인건비 부담	1	2	3	4	5	6
● 근로자의 수	1	2	3	4	5	6
● 제품(서비스)의 가격	1	2	3	4	5	6
● 설비투자 확대 및 신기술도입	1	2	3	4	5	6

### 6. 최근 임금인상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임금인상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일반근로자: 1순위 1, 2순위 4, 3순위 5  
●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1순위 1, 2순위 2, 3순위 6

- 1) 경영실적(영업이익 등)    2) 물가상승률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4) 노동생산성    5) 경쟁업체의 임금인상률    6) 최저임금 인상률

## 7.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거인상률: 16.4%('18년) → 10.9%('19년) → 2.87%('20년) → 1.51%('21년)

☒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다소 영향을 준다☐ 변화 없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8.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금전지급 제외) 지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 명, 원)

체크란	구분	지급대상(범위)	지급 근로자 수	월 1인당 평균 지급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숙사 및 주택제공	200,000	6	33,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식사	4,000,000	20	200,000
<input type="checkbox"/>	통근차량운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			

## 9.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1순위: 2, 2순위: 5, 3순위: 7

- |                  |                |
|------------------|----------------|
| 1) 경제성장률         | 2) 물가상승률       |
|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 4) 노동생산성       |
| 5)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 6) 근로자간 임금소득격차 |
| 7) 기업의 지불능력      |                |

## 10. 코로나 19 사태가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크다☒ 크다☐ 보통이다☐ 적다☐ 매우 적다

## 10-1. 코로나 19 사태 이전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상태로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상

## 11. 최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0.5% 미만☐ 0.5~2.5%☒ 2.5~5%☐ 5~10%☐ 10% 이상

## 11-1. 2022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인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0.5% 미만☐ 0.5~2.5%☐ 2.5~5%☐ 5~10%☐ 10% 이상



## 근로자

**설문 항목** 해당항목에 "v"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일반적인 근로자: 시급 기준 8,720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822,480원/월 209시간 기준)
- 감액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7,848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640,232원/월 209시간 기준)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1. 최근 임금인상 요구 또는 임금 협상을 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까?

- ☐ 매우 영향을 주었다  
☐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임금이 인상된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2021년 최저임금 1.51% 인상)과 비교하였을 때 인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낮게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3. 2021년에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아래 항목 중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다니까?

(복수응답 가능)

구분	조치 여부	
● 인원조정(정리해고, 감원 등)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 임금항목 조정(수당의 기본급 포함 등)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 정규직의 시간제로의 전환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 근로시간 조정(단축, 연장)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 휴식시간 증가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 아웃소싱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4.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이 귀하의 생계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충분하다      ☐ 충분하다      ☐ 보통이다  
☐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5.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 ☐ 홍보부족으로 최저임금액, 적용시기 등을 알기 어렵다  
☐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 월급 등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어렵다  
☐ 어려운 점이 없다  
☐ 기타( )

6. 최저임금이 변경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서
- ☒ 언론 매체를 통하여
- ☐ 고용노동부 공문 등을 통하여
- ☐ 기타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

7. 매년 1월1일 시행되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무응답)

- ☐ 매년 1월 1일에 인상된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 회사의 임금인상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차액분의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 ☐ 회사의 임금인상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차액분의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8.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1.51%)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잘한 결정
- ☐ 무난한 결정
- ☒ 아쉽지만 어쩔수 없는 결정
- ☐ 잘못된 결정

9.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그렇다
- ☐ 조금 그렇다
- ☐ 보통이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0.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1순위: 2, 2순위: 3, 3순위: 5

- |                  |                |
|------------------|----------------|
| 1) 경제성장률         | 2) 물가상승률       |
|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 4) 노동생산성       |
| 5)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 6) 근로자간 임금소득격차 |
| 7) 기업의 지불능력      |                |

11. 코로나 19 사태가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크다
- ☐ 크다
- ☒ 보통이다
- ☐ 적다
- ☐ 매우 적다

12. 최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0.5% 미만
- ☐ 0.5~2.5%
- ☐ 2.5~5%
- ☒ 5~10%
- ☐ 10% 이상

12-1. 2022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인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0.5% 미만
- ☐ 0.5~2.5%
- ☐ 2.5~5%
- ☒ 5~10%
- ☐ 10% 이상



## OOOO마트주식회사

### ■ 사업장 개요

#### ○ 일반 현황(전체)

업체명	OOOO마트주식회사	대표자	나○○
설립일자	20○○.○○.○○	주요업종	마트,도,소매
노조유무	무	생산품목	
소재지	서울 양천구 ○○○○○○○○		

#### ○ 근로자 현황 (전체)

(단위: 명)

모든 근로자	합계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영업직 등
총 근로자수	30	1	—	29
여성근로자수	12	1	—	11
정규직	30	1	—	29
비정규직	—	—	—	—
고령자(만55세이상)	7	—	—	7
외국인 근로자	—	—	—	—

#### ○ 임금인상 현황

- 임금인상시기: 매년 1월
- 최근 4년간 임금인상률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임금 인상률	5	5	10	17

###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21.6.4.(금) 10:00~12:00

#### ○ 참석위원(10명)

- 공익위원(4명): 신○○, 양○○, 이○○, 이○○
- 사용자위원(4명): 권○○, 박○○, 박○○, 오○○
- 근로자위원(2명): 유○○(대참), ○○(대참)
- \* 배석: 김○○, 이○○, 고○○

#### ○ 면담자(2명)

- 사용자(1명): 대표이사 나○○
- 근로자(1명): 근로자 김○○





## 면담내용



## 사 용 자

## Q. 기업일반 현황

- 2011년에 설립한 매출액 150억원의 마트임. 근로자수는 30명으로 계산, 상품진열, 판매, 배달 등의 일을 하고 있음.

## Q. (공익위원) 근로자 중 고령자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 50대가 80% 이상임.

## Q. (공익위원) 근로자의 근로형태는 어떤지?

- 한 달에 7일 쉬고 250시간 근무함. 영업시간에 맞추어 9시~18시에 근무하는 직원과 13시~22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 Q. (공익위원) 근로자의 급여수준은 어떤지?

- 경력이 없는 신규입사자는 1년 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함. 남성근로자는 업무 강도가 강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음. 현재 여성근로자 12명 중 5~6명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 Q. (공익위원) 최근에 경영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무엇인지?

- 인건비와 카드수수료의 부담이 가장 큼. 카드수수료는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 외, 광고비와 고객포인트적립 비용도 부담됨. 대기업의 경우 카드사가 할인행사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생각함.

## Q. (사용자위원) 상품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식자재 외 마트상품이 70% 정도 됨.

## Q. (사용자위원) 설비투자를 확대하게 된 이유는?

- 소비트렌드가 변화하고 인건비가 인상되어 정육 코너를 셀프용으로 바꾸었음.

## Q. (공익위원) 2017년 전후 근로자수 변화는?

- 28~30명을 유지하고 있음.

## Q. (공익위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력자에 대한 임금도 그만큼 올려줘야 함.

**Q. (공익위원) 근로자간에 소득격차가 심한지?**

-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있음. 근로자의 소득격차는 노동생산성과 연관이 있음.

**Q. (공익위원) 코로나19에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지?**

-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값을 낮춰서라도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음.

**Q. (사용자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마트 업종이 많이 어려운지?**

- 마트 10%만 현상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려운 상황임.

**Q. (근로자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 소비자들이 식품을 직접 보고 꼼꼼히 따지는 등 소비행태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에 잘 대응하고 있음. 오프라인 강자가 되면 온라인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되어 온라인 진출은 하지 않고 있음.

**Q. (공익위원)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 코로나19가 종식되면 '18~'19년 수준은 바로 복구될 것으로 봄. 다만, 비대면에 익숙한 소비자로 인해 소비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걱정됨.

**Q. (공익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지?**

- 7~8% 정도 인상되면 좋겠지만, 회사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9,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Q. (공익위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은?**

- 최저임금이 업종별, 연령별, 외국인에 대해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근로자**

**Q. (공익위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 마트에서 일한지 10년 정도 되었음. 처음에는 계산원을 하다 지금은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도 받고 손님 응대도 하고 있음.

**Q. (공익위원) 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영향을 미치는지?**

-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물가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침.

**Q. (공익위원) 신입근로자와 경력근로자간에 임금 격차가 큰지?**

-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근로자위원)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 받고 있는지?

- 1년에 4번 나누어 지급받고 있음.

**Q.** (공익위원)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 6인 가족의 맞벌이 부부로 배우자의 급여가 좀 더 많음.

**Q.** (공익위원) 회사에서 임금협상은 언제 하는지?

- 개인별로 시기가 다름

**Q.** (근로자위원) 작년 대비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 20~30만원 올랐음.

**Q.** (공익위원)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비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 모자란다고 생각함.

**Q.** (공익위원) 적당한 생계비는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 월 250~300만원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음.

**Q.**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여가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시급 1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설문조사 결과



## 사 용 자

### 설문 항목

해당항목에 “√”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일반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8,720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822,480원/월 209시간 기준)
- 감액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7,848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640,232원/월 209시간 기준)
  -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 1. 2021년도의 신규 채용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 신규채용이 있었다 : 2 명  
☐ 신규채용이 없었다

### 2. 2021년도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 최저임금 수준(그 이하 포함)으로 고용했다 : \_\_\_\_명  
☒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으로 고용했다 : 2명

### 3. 지난해와 비교하여 최근 경영상황은 어떻습니까?

- ☐ 매우 좋아지고 있다    ☐ 좋아지고 있다    ☐ 보통이다  
☒ 나빠지고 있다    ☐ 매우 나빠지고 있다

### 4. 경영상황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 적다

### 5.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다음의 각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크게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크게 감소	해당 없음
● 인건비 부담	1	2	3	4	5	6
● 근로자의 수	1	2	3	4	5	6
● 제품(서비스)의 가격	1	2	3	4	5	6
● 설비투자 확대 및 신기술도입	1	2	3	4	5	6

### 6. 최근 임금인상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임금인상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일반근로자: 1순위 1, 2순위 5, 3순위 4  
 ●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1순위 6, 2순위 1, 3순위 4

- 1) 경영실적(영업이익 등)    2) 물가상승률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4) 노동생산성    5) 경쟁업체의 임금인상률    6) 최저임금 인상률

☐ 10% 이상



## 근로자

**설문 항목** 해당항목에 "v"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일반적인 근로자: 시급 기준 8,720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822,480원/월 209시간 기준)
- 감액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7,848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640,232원/월 209시간 기준)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1. 최근 임금인상 요구 또는 임금 협상을 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까?  
☐ 매우 영향을 주었다  
☒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임금이 인상된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2021년 최저임금 1.51% 인상)과 비교하였을 때 인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낮게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3. 2021년에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아래 항목 중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구분	조치 여부	
● 인원조정(정리해고, 감원 등)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었다
● 임금항목 조정(수당의 기본급 포함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 정규직의 시간제로의 전환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 근로시간 조정(단축, 연장)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었다
● 휴식시간 증가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었다
● 아웃소싱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었다

4.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이 귀하의 생계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충분하다      ☐ 충분하다      ☒ 보통이다  
☐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5.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 ☒ 홍보부족으로 최저임금액, 적용시기 등을 알기 어렵다
- ☒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 ☒ 월급 등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어렵다
- ☐ 어려운 점이 없다
- ☐ 기타( )

## 6. 최저임금이 변경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서
- ☒ 언론 매체를 통하여
- ☐ 고용노동부 공문 등을 통하여
- ☐ 기타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

## 7. 매년 1월1일 시행되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무응답)

- ☐ 매년 1월 1일에 인상된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 회사의 임금인상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차액분의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 ☐ 회사의 임금인상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차액분의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8.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1.51%)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잘한 결정 ☐ 무난한 결정
- ☒ 아쉽지만 어쩔수 없는 결정 ☐ 잘못된 결정

## 9.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보통이다
-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10.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1순위: 3, 2순위: 5, 3순위: 2

- |                  |                |
|------------------|----------------|
| 1) 경제성장률         | 2) 물가상승률       |
|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 4) 노동생산성       |
| 5)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 6) 근로자간 임금소득격차 |
| 7) 기업의 지불능력      |                |

## 11. 코로나 19 사태가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 적다 ☐ 매우 적다

## 12. 최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0.5% 미만 ☐ 0.5~2.5% ☒ 2.5~5%
- ☐ 5~10% ☐ 10% 이상

## 12-1. 2022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인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0.5% 미만 ☐ 0.5~2.5% ☒ 2.5~5%
- ☐ 5~10% ☐ 10% 이상



## 인천○○○○○○○○협회

### ■ 사업장 개요

#### ○ 일반 현황(전체)

업체명	인천○○○○○○○○협회	대표자	신○○
설립일자	20○○.○○.○○	주요업종	사회서비스업
노조유무	유	생산품목	
소재지	인천 미추홀구 ○○○○○○○○		

#### ○ 근로자 현황 (전체)

(단위: 명)

모든 근로자	합계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영업직 등
총 근로자수	158	3	-	155
여성근로자수	142	2	-	140
정규직	3	3	-	-
비정규직	155	-	-	155
고령자(만55세이상)	71	-	-	71
외국인 근로자	-	-	-	-

#### ○ 임금인상 현황

- 임금인상시기: 매년 1월
- 최근 4년간 임금인상률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임금 인상률	1.7	2.9	16.2	18.0

###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21.6.4.(금) 14:00~16:40

#### ○ 참석위원(7명)

- 공익위원(4명): 노○○, 양○○, 이○○, 이○○
- 사용자위원(1명): 김○○(대참)
- 근로자위원(2명): 유○○(대참), 홍○○(대참)
- \* 배석: 이○○, 고○○

#### ○ 면담자(8명)

- 사용자(3명): 협회장 신○○, 사무국장 김○○, 활동지원팀장 김○○
- 근로자(5명): 근로자 김○○, 박○○, 황○○, 김○○, 김○○





## 면담내용



## 사 용 자

## Q. 기업일반 현황

- 정부 지원에 따라 운영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임. 근로자 158명 중 사무직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5명은 시급을 받는 활동지원사업. 전체 인원 중 장애인노동자도 7명이 있으며,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 Q. (공익위원) 활동지원사란 무엇인지?

-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보완하는 근로자임.

## Q. (공익위원) 근로자 신규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이용인(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활동지원사를 배정해 주며, 시간제로 일하게 됨.

## Q. (공익위원)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얼마인지?

- 정부가 산정한 수가에서 75% 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그 이상 주고 있음. 활동지원사에게는 최저시급에 주휴, 연차를 포함해서 시간당 급여로 주고 있음.

## Q. (공익위원) 경영상황은 어떤지?

- 정부 산정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분이나 근로기준법상 수당인 연장·공휴일 수당을 반영 하지 않고 있음. 운영비의 일부 등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함.

## Q. (사용자위원) 정부 지원 수가가 매년 증가하는지?

- '18년까지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지만, 현정부 들어 수가가 많이 올라 주휴·연차 수당은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연장·공휴일 수당은 지급할 수 없어 해당 근로는 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 Q. (공익위원) 코로나19가 매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 서비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용시간이 늘어나 월 기준시간인 174시간을 초과하게 됨.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줄 수 없으므로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음.

## Q.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부 지원 수가가 인상되는지?

-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맞춰 수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음.

### Q. (공익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성격은 어떤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지정사업이며, 수가가 일반재원인 일반회계 사업임.

### Q. (공익위원) 사무직의 급여는 얼마인지?

- 인천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사회복지사 호봉표에 따라 지급함.

### Q. (공익위원) 정부 지원 수가가 모자르면 어떻게 충당하는지?

- 현재 부족한 적자분은 작년 잉여금,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법정 수당을 줄 수 없는 상황임.

### Q. (공익위원) 근로자 중 여성과 고령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비용이 낮다 보니 주로 여성근로자가 많음.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남성근로자, 경력단절 여성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함.



## 근로자

### Q. (공익위원) 최저임금이 생계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 4인 가족으로 월 90시간 일하고 월 급여 120만 원, 실수령액 110~115만원

을 받는데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부족함. 월 200만 원은 되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외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음.

- 급여가 적어 남성 활동지원사가 거의 없는데, 월 200만 원은 되어야 생계도 가능하고 남성 활동지원사도 많이 들어올 것임.
- 맞벌이로 배우자의 수입이 주수입원임. 근로시간 한도인 174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종일 일해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됨.
- 활동지원사 업무가 어렵고 일하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음.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은 모든 일을 다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임.

### Q. (공익위원) 코로나19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 이용자(중증장애인)나 서비스제공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가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해 임금이 줄어듦.

### Q.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 시급 11,000원 이상 되어야 함.

### Q. (근로자위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의견?

- 임금은 양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Q. (공익위원) 활동지원사도 해고가 되는지?**

- 이용자가 활동지원사를 거부하면 근무하지 못함.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은 아님.

**Q. (공익위원) 근무하다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 휠체어 끼임 사고가 몇 번 있었음.
- 허리 부상으로 현재 통증이 있음.

**Q. (공익위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은?**

- 활동지원사는 현장에서 공공성을 위해 애쓰고 있음.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수를 희망함.



**설문조사 결과**



**사 용 자**

**설문 항목** 해당항목에 “√”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일반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8,720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822,480원/월 209시간 기준)
- 감액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7,848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640,232원/월 209시간 기준)
  -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1. 2021년도의 신규 채용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신규채용이 있었다 : 12 명
- 신규채용이 없었다

**2. 2021년도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최저임금 수준(그 이하 포함)으로 고용했다 : 12 명
-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으로 고용했다 : \_\_\_\_명

3. 지난해와 비교하여 최근 경영상황은 어떻습니까?

- ☐ 매우 좋아지고 있다    ☐ 좋아지고 있다    ☐ 보통이다  
☒ 나빠지고 있다    ☐ 매우 나빠지고 있다

4. 경영상황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 적다

5.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다음의 각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크게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크게 감소	해당 없음
● 인건비 부담	1	2	3	4	5	6
● 근로자의 수	1	2	3	4	5	6
● 제품(서비스)의 가격	1	2	3	4	5	6
● 설비투자 확대 및 신기술도입	1	2	3	4	5	6

6. 최근 임금인상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임금인상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일반근로자: 1순위 6, 2순위 1, 3순위 1  
 ●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1순위 6, 2순위 5, 3순위 1

- 1) 경영실적(영업이익 등)    2) 물가상승률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4) 노동생산성    5) 경쟁업체의 임금인상률    6) 최저임금 인상률

7.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거인상률: 16.4%(’18년) → 10.9%(’19년) → 2.87%(’20년) → 1.51%(’21년)

- ☒ 매우 큰 영향을 준다  
☐ 다소 영향을 준다  
☐ 변화 없다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8.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금전지급 제외) 지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 명, 원)

체크란	구분	지급대상(범위)	지급 근로자 수	월 1인당 평균 지급액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및 주택제공			
<input type="checkbox"/>	식사			
<input type="checkbox"/>	통근차량운행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명절 상여금)	전체 비정규 노동자	155	300,000

## 9.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1순위:
- 2
- , 2순위:
- 3
- , 3순위:
- 6

- |                  |                |
|------------------|----------------|
| 1) 경제성장률         | 2) 물가상승률       |
|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 4) 노동생산성       |
| 5)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 6) 근로자간 임금소득격차 |
| 7) 기업의 지불능력      |                |

## 10. 코로나 19 사태가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 적다

## 10-1. 코로나 19 사태 이전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상태로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상

## 11. 최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0.5% 미만      □ 0.5~2.5%      □ 2.5~5%
- 5~10%      □ 10% 이상

## 11-1. 2022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인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0.5% 미만      □ 0.5~2.5%      □ 2.5~5%
- 5~10%      ■ 10% 이상



## 근로자

설문 항목    해당항목에 “√”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일반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8,720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822,480원/월 209시간 기준)
- 감액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7,848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640,232원/월 209시간 기준)
  -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 1. 최근 임금인상 요구 또는 임금 협상을 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까?

- 매우 영향을 주었다
-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임금이 인상된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2021년 최저임금 1.51% 인상)과 비교하였을 때 인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낮게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3. 2021년에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아래 항목 중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구분	조치 여부	
● 인원조정(정리해고, 감원 등)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었다
● 임금항목 조정(수당의 기본급 포함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 정규직의 시간제로의 전환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었다
● 근로시간 조정(단축, 연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없었다
● 휴식시간 증가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었다
● 아웃소싱	<input type="checkbox"/> 있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었다

4.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이 귀하의 생계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충분하다      ☐ 충분하다      ☐ 보통이다  
☒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5.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 ☐ 홍보부족으로 최저임금액, 적용시기 등을 알기 어렵다  
☒ 각종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 월급 등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어렵다  
☐ 어려운 점이 없다  
☐ 기타( )

6. 최저임금이 변경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서  
☐ 언론 매체를 통하여  
☐ 고용노동부 공문 등을 통하여  
☐ 기타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

7. 매년 1월1일 시행되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무응답)

- ☐ 매년 1월 1일에 인상된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회사의 임금인상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차액분의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다  
☐ 회사의 임금인상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차액분의 임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8.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1.51%)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잘한 결정                      ☐ 무난한 결정  
☐ 아쉽지만 어쩔수 없는 결정      ☒ 잘못된 결정

9.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보통이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0.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1순위: 3, 2순위: 2, 3순위: 1

- |                  |                |
|------------------|----------------|
| 1) 경제성장률         | 2) 물가상승률       |
|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 4) 노동생산성       |
| 5)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 6) 근로자간 임금소득격차 |
| 7) 기업의 지불능력      |                |

11. 코로나 19 사태가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 적다

12. 최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0.5% 미만              ☐ 0.5~2.5%              ☐ 2.5~5%  
☒ 5~10%              ☐ 10% 이상

12-1. 2022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인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0.5% 미만              ☐ 0.5~2.5%              ☐ 2.5~5%  
☐ 5~10%              ☒ 10% 이상



## ○○○○안전(주)

### ■ 사업장 개요

#### ○ 일반 현황(전체)

업체명	○○○○안전(주)	대표자	김○○
설립일자	19○○.○○.○○	주요업종	서비스(사업관련)
노조유무	유	생산품목	호송경비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		

#### ○ 근로자 현황 (전체)

(단위: 명)

모든 근로자	합계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영업직 등
총 근로자수	1,163	90	—	1,073
여성근로자수	97	11	—	86
정규직	846	88	—	758
비정규직	317	2	—	315
고령자(만55세이상)	99	8	—	91
외국인 근로자	—	—	—	—

#### ○ 임금인상 현황

- 임금인상시기: 매년 1월
- 최근 4년간 임금인상률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임금 인상률 (일반/계약)	0~1.0 (1.5)	0~12.9 (2.9)	1.0 (10.9)	1.9~15.1 (16.4)

###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21.6.9.(수) 14:00~16:40

#### ○ 참석위원(9명)

- 공익위원(4명): 노○○, 신○○, 오○○, 이○○
- 사용자위원(3명): 이○○, 이○○, 하○○
- 근로자위원(3명): 김○○, 김○○, 정○○
- \* 배석: 한○○, 이○○, 석○○

#### ○ 면담자(8명)◎

- 사용자(4명): 부사장 양○○, 부장 남○○, 부장 장○○, 팀장 이○○
- 근로자(4명): 위원장 이○○, 근로자 장○○, 남○○, 김○○





## 면담내용



## 사 용 자

## Q. 기업일반 현황

- 1990년 당시 6개 시중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현금 및 공문서 수송 업체로 은행 간 현금과 관련 행정문서 수발 업무를 주로 함. 전국 22개 지점에 전체 직원은 1,163명임.

## Q. (공익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대리승급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됨. 처음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만, 정규직이 되는 5년차 부터는 호봉제가 적용됨.

## Q. (공익위원) 올해 210명을 신규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 일찍 출근해야 되는 일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아 결원을 채운 것임.

## Q. (근로자위원) 호봉제에 따라 연차별로 임금이 인상되는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5급 직원까지는 인상의 효과가 없음.
- 코로나19로 일감이 줄고, 최저가입찰제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85%에 달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

## Q.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 계약직 320명 중에 220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

## Q. (근로자위원) 계약직의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이들이 동종업체로 가는지?

- 회사의 복지수준이 동종업체 중 좋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업체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

## Q. (근로자위원)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조와 노력하고 있음.
- 회사는 경영상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움을 가중할 것임.



## 근로자

## Q. (공익위원)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 연차가 쌓여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최저가입찰제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 그래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Q.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연차가 쌓이면 임금이 오르는지?**

- 호봉제이기는 하지만 상여금의 비중이 커 오른 최저임금 만큼 상여금에서 충당하는 구조임.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으로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지 않음.

**Q. (사용자위원)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지?**

-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받고 있음.

**Q. (근로자위원) 내년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면 회사가 지불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회사 경영의 어려움은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음. 다만, 경영진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공통 분담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임.

**Q.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은?**

-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견뎌 왔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잘못된 제도이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선행되었으면 함.



**설문조사 결과**



**사 용 자**

**설문 항목** 해당항목에 “√”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일반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8,720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822,480원/월 209시간 기준)
- 감액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7,848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640,232원/월 209시간 기준)
  -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1. 2021년도의 신규 채용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신규채용이 있었다 : 210 명
- 신규채용이 없었다

**2. 2021년도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최저임금 수준(그 이하 포함)으로 고용했다 : 210 명
-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으로 고용했다 : \_\_\_\_명

## 3. 지난해와 비교하여 최근 경영상황은 어떻습니까?

- ☐ 매우 좋아지고 있다    ☐ 좋아지고 있다    ☐ 보통이다  
☒ 나빠지고 있다    ☐ 매우 나빠지고 있다

## 4. 경영상황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 적다

## 5.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다음의 각 항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크게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크게 감소	해당 없음
● 인건비 부담	1	2	3	4	5	6
● 근로자의 수	1	2	3	4	5	6
● 제품(서비스)의 가격	1	2	3	4	5	6
● 설비투자 확대 및 신기술도입	1	2	3	4	5	6

## 6. 최근 임금인상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임금인상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일반근로자: 1순위 1, 2순위 6, 3순위 4  
 ●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1순위 6, 2순위    , 3순위

- 1) 경영실적(영업이익 등)    2) 물가상승률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4) 노동생산성    5) 경쟁업체의 임금인상률    6) 최저임금 인상률

## 7.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거인상률: 16.4%(’18년) → 10.9%(’19년) → 2.87%(’20년) → 1.51%(’21년)

- ☒ 매우 큰 영향을 준다  
☐ 다소 영향을 준다  
☐ 변화 없다  
☐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8.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금전지급 제외) 지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 명, 원)

체크란	구분	지급대상(범위)	지급 근로자 수	월 1인당 평균 지급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숙사 및 주택제공	타지 발령자	14	212,850
<input type="checkbox"/>	식사			
<input type="checkbox"/>	통근차량운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			

## 9.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1순위: 4, 2순위: 7, 3순위: 1

- 1)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4) 노동생산성  
 5)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6) 근로자간 임금소득격차  
 7) 기업의 지불능력

10. 코로나 19 사태가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이다  
☐ 적다      ☐ 매우 적다

10-1. 코로나 19 사태 이전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상태로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상

11. 최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0.5% 미만      ☒ 0.5~2.5%      ☐ 2.5~5%  
☐ 5~10%      ☐ 10% 이상

11-1. 2022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인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0.5% 미만      ☐ 0.5~2.5%      ☐ 2.5~5%  
☐ 5~10%      ☐ 10% 이상



## 근로자

### 설문 항목

해당항목에 “√”자 표시, 또는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일반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8,720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822,480원/월 209시간 기준)
- 감액적용 근로자: 시급 기준 7,848원(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 1,640,232원/월 209시간 기준)
  -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1. 최근 임금인상 요구 또는 임금 협상을 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까?

- ☒ 매우 영향을 주었다  
☐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임금이 인상된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2021년 최저임금 1.51% 인상)과 비교하였을 때 인상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낮게 인상하였다  
☐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 보통이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0.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

● 1순위: 3, 2순위: 2, 3순위: 5

- |                  |                |
|------------------|----------------|
| 1) 경제성장률         | 2) 물가상승률       |
| 3)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율  | 4) 노동생산성       |
| 5)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 6) 근로자간 임금소득격차 |
| 7) 기업의 지불능력      |                |

11. 코로나 19 사태가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우 크다 | <input type="checkbox"/> 크다    |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
| <input type="checkbox"/> 적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적다 |                               |

12. 최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0.5% 미만 | <input type="checkbox"/> 0.5~2.5% | <input checked="" type="checkbox"/> 2.5~5% |
| <input type="checkbox"/> 5~10%   | <input type="checkbox"/> 10% 이상   |  |

12-1. 2022년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인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0.5% 미만 | <input type="checkbox"/> 0.5~2.5% | <input checked="" type="checkbox"/> 2.5~5% |
| <input type="checkbox"/> 5~10%   | <input type="checkbox"/> 10% 이상   |  |

## 9 보도자료

📅 배포일: 2021.04.20.(화)

### 2021년 제1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4.20.(화) 15:00에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1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 지난 3.31.(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 '20.7.27. 고용노동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공석이었던 부위원장을 선출(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하였으며,

– '21.3.26. 근로자위원 교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또한 '실태생계비 분석',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는 등 '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므로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전원회의 개최 전 실시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차 전원회의는 12대 위원 위촉 시 신속히 개최하고,

\* 11대 위원 임기 만료일: '21.5.13.

-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5~6월 중에 사업장 방문 및 권역별 토론회 등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붙임: 향후 일정 1부. 끝.

붙임	향후 일정(안)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5월 셋째주 (세종) *잠정: 5.18.	제2차 전원회의	○ 위원회 구성 ○ 주요 회의 및 현장 의견청취 일정 논의
5월 3~4주	제1차 생계비전문위원회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 ○ 노사단체에서 산정한 생계비 심사 (노사단체 생계비안 제출 시)
6월 1~2주	제1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근로자의 임금실태 분석 결과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 노사단체의 최초요구안 심사 (노사단체에서 요구안 제출 시)

\* 세부일정은 제12대 위원 위촉 일정, 노·사 및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

##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5.18.(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1명 불참

- 박준식 위원을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정열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 '21.5.14.자 제12대 위원 위촉에 따른 운영위원회(위원장 및 노·사·공익대표위원 2인으로 구성) 및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를 구성하였다.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구성 완료되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전문위원회 미구성(추후 민주노총 의견 반영하여 구성 예정)

- '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전문위원회로부터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이후인 제3차 전원회의('21.6.15.,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초까지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생계비전문위원회('21.6.10., 오전), 임금수준전문위원회('21.6.10., 오후)

- 아울러 노·사·공익위원은 제3차 전원회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6월 1~2주 중 사업장 4개소(노·사 각 2개소 추천)

- 박준식 위원장은 제12대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한 축하 및 제12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 제12대 최저임금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 목적에 맞게 심의·의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하면서,
- 또한,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주 모두 국민경제의 소중한 주체이므로 상대방을 인정·존중·포용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제12대 위원장 프로필 1부.

2. 전문위원회 등 구성 1부.

3. 향후 일정 1부. 끝.



## 붙임1

## 제12대 위원장 프로필

## ■ 인적사항

- 성명: 박 준 식(朴 濬 植)
- 생년월일: '60. 4. 30.(만 61세)
- 출신: 서울



## ■ 학력

- '83년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 '85년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 '92년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 ■ 주요경력

- (現)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비전협력처장
- (現)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前) 지역사회학회 회장
- (前) 한림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 붙임2

## 전문위원회 등 구성

구분	위원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생계비 전문위원회	양정열	정문주 김영훈	류기정 오세희 이오선 박길수	양정열 노민선 전 인 신자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양정열	이동호 김현중 김만재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권순중 하상우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이수연
운영위원회	박준식	이동호	류기정 이태희	양정열 권순원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구성 완료되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전문위원회 미구성(추후 민주노총 의견 반영하여 구성 예정)

붙임3	향후 일정(잠정)
-----	-----------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6월 10일 오전 서울	제1차 생계비전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 보고</li> <li>○ 노사단체에서 산정한 생계비 심사 (노사단체 제출 시)</li> </ul>
6월 10일 오후 서울	제1차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임금실태 분석 결과 보고</li> <li>○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보고</li> <li>○ 노사단체의 최초요구안 심사 (노사단체 제출 시)</li> </ul>
6월 15일 15시 세종	제3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전문위원회(생계비·임금수준) 심사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li> </ul>
6월 22일 15시 세종	제4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li> </ul>

\* 상기 일정은 잠정(안)으로 노·사 및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

\* '21.6.3(목) 제5차 연구위원회 개최하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사전 논의 예정

배포일: 2021.06.15.(화)

##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6.15.(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제2차 전원회의 결과와 전문위원회 심사결과(생계비·임금수준 실태 분석) 및 사업장 현장방문(노·사·공익위원 31명(연인원) 참여, 사업장 4개소 방문 면담)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 이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다.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 위원 간 합의를 거쳐 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②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③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후,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부터 논의한 결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치열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기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관련 노사 이견

- 근로자위원: 월급으로 결정, 시급 병기
  - 주장 요지: 근로자 생활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월급으로 지급할 필요
- 사용자위원: 시급으로만 결정
  - 주장 요지: 근로자별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으로 인해 월급을 정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4차 전원회의는 '21.6.22.(화) 15:00,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향후 일정(안) 1부. 끝.

붙임	향후 일정(안)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6.22.(화) 15:00 세종	제4차 전원회의	○ 제3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
6.24.(목) 15:00 세종	제5차 전원회의	○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
6.29.(화) 15:00 세종	제6차 전원회의	○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

##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6.22.(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제3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다.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표결 없이 결정하였다.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관련 노·사 이견

- 사용자위원: 도입 필요
  - － 주장요지: 현행법 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의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업종별로 어려운 사정과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하여 구분 적용 필요
- 근로자위원: 도입 반대
  - － 주장요지: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고, 낙인효과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아니함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하지 못하였으며,

- 위원장은 심의기한('21.6.29.) 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노·사 위원에게 다음 전원회의('21.6.24.)까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제5차 전원회의는 '21.6.24.(목) 15:00,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배포일: 2021.06.24.(목)

##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6.24.(목)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다.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지난 제4차 전원회의에 이어 장시간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에서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논의하지 못했다.

\*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 전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여 제시안(시급 10,800원)을 발표하였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아니함

■ 위원장은 제6차 전원회의 시작 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노·사 대표위원의 발언을 들은 후 표결을 실시할 예정(16시경)이며,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표결 이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노·사 양측에 최초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제6차 전원회의는 '21.6.29.(화) 15:00,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6.29.(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제4~5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다.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노·사 대표위원의 발언을 듣고 표결을 진행하였다.

○ 최저임금 위원 전원(총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안건\*이 부결되었다.

\* 안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다.

### \* 최저임금 최초제시안 및 근거

●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 시간급 10,800원(전년 대비 23.9% 인상)

－ 제시근거

- 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함
- ②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필요
- ③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도모
- ④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필요

● 사용자위원 최초제시안: 시간급 8,720원(전년 대비 동결)

－ 제시근거

- ①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 초과(G7 상위권)
- ②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
- ③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 ④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 노·사·공익위원은 최초제시안에 대해 치열히 논의하였으나 양측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 다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좀 더 진전된 논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제7차 전원회의는 '21.7.6.(화) 15:00,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향후 일정(안) 1부. 끝.

붙임		향후 일정(안)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7.6.(화) 세종	제7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li> </ul>
7.8.(목) 세종 (잠정)	제8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li> </ul>

\* 논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배포일: 2021.07.06.(화)

##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7.6.(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제6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논의하였다.
- 노·사 양측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출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勞 시급 10,800원, 23.9% 인상안, 使 시급 8,720원, 동결)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에게 최초제시안의 제시 근거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노·사측 의견의 간극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
  -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제8차 전원회의 시작 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열린 자세로 의미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제8차 전원회의는 '21.7.8.(목) 15:00,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향후 일정(안) 1부. 끝.

붙임	향후 일정(안)
----	----------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7.8.(목) 세종	제8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li> </ul>
7.12.(월) 세종 (잠정)	제9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li> </ul>

\*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 배포일: 2021.07.08.(목)

##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7.8.(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논의하였다.

■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2차 제시안(1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였다.

### \* 노·사 2차 제시안 및 근거

- 근로자위원 2차 제시안: 시간급 10,440원(전년 대비 19.7% 인상)

\* 전 차수 제시안(시간급 10,800원) 대비 360원 인하

— 근거: 3인 가구 생계비(2,028,988원) X 임금인상전망치(5.5%) X 소득분배 개선분(2%)로 산출한 월환산액(2,181,162원)을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

- 사용자위원 2차 제시안: 시간급 8,740원(전년 대비 0.2% 인상)

\* 전 차수 제시안(시간급 8,720원) 대비 20원 인상

— 근거: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불변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0.2% 증가

○ 사용자위원의 2차 제시안이 제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하여 퇴장하였으며,



- 일부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이 남은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2차 제시안 및 그 근거에 대해 양측 간 토론 및 공익위원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 노·사 양측의 입장의 차이가 커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였다.
  -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합의 또는 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 3차 제시안을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제9차 전원회의는 '21.7.12.(월) 15:00,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붙임: 향후 일정(안) 1부. 끝.

붙임	향후 일정(안)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7.12.(월) 세종	제9차 전원회의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7.12.(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 勞 10,320원(1,600원, 18.3% 인상), 使 8,810원(90원, 1.0% 인상)

- 제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 끝에 노·사는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하였다.

\* 勞 10,000원(1,280원, 14.7% 인상), 使 8,850원(130원, 1.49% 인상)

○ 노·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였으며,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하였다.

\* 하한선: 시간급 9,030원, 올해 대비 310원 인상(3.6% 인상)

상한선: 시간급 9,300원, 올해 대비 580원 인상(6.7% 인상)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하였으며,

-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기권자 포함)이 출석하여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3:55에 가결되었다.

-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4,440원으로 올해 대비 91,960원 인상된다.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 + 소비자물가 상승률(1.8%) - 취업자증가율(0.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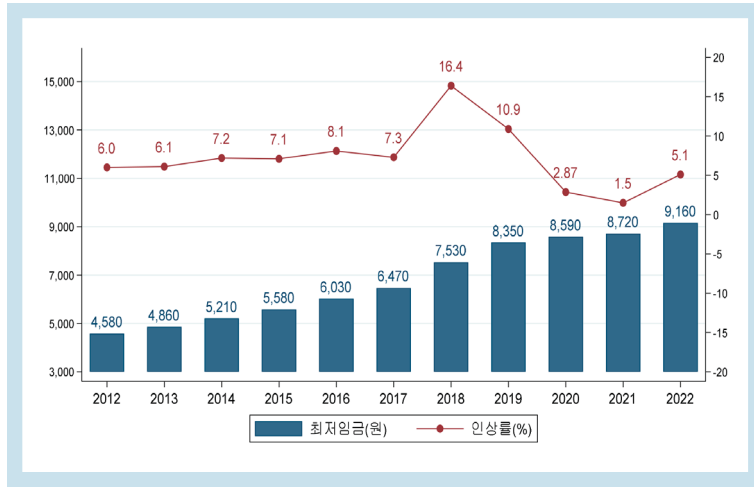
\* 국내 주요 기관 경제전망치의 평균을 활용

구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기획재정부	4.2%	1.8%	0.9%
한국은행	4.0%	1.8%	0.5%
KDI	3.8%	1.7%	0.7%
평균	4.0%	1.8%	0.7%

■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3,550천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 고용형태별실태조사: 768천명(4.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3,550천명(17.4%)

&lt;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2년~2022년)&gt;



붙임: 1.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1부.  
2.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 1부. 끝.

붙임1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구분(일자)	내용
최저임금 심의요청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li> </ul> </li> </ul>
연구위원회 (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의견청취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실무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1.22.), 제2차(2.18.), 제3차(4.13.), 제4차(5.11.), 제5차(6.3.)</li> </ul> </li> </ul>
현장 의견청취 (2~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익위원 중심으로 비대면 간담회 실시, 7개소) 및 사업장 현장 방문(노·사 추천 사업장 4개소) 실시</li> </ul>
전문위원회 (생계비· 임금수준)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li> </ul> </li> </ul>

구분(일자)	내용
제1차 전원회의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3.31. 고용노동부장관 요청) 접수</li> <li>○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li> </ul>
제2차 전원회의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대 위원 위촉(5.14.)에 따라 위원장(박준식) · 부위원장(양정열)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li> </ul>
제3차 전원회의 (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및 현장방문 결과 접수 · 보고</li> <li>○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논의</li> </ul>
제4차 전원회의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노 · 사 간 합의하여 표결 없이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주문)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li> </ul> </li> <li>○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li> </ul>
제5차 전원회의 (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지난 제4차 전원 회의에 이어 장시간 논의하였으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음</li> <li>○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 · 사 양측에서 최초제시안을 제출 하지 아니하여 논의하지 못함</li> </ul>

구분(일자)	내용						
제6차 전원회의 (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전원(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여, 찬성 11명 · 반대 15명 · 기권 1명으로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결주문)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li> </ul> </li> <li>○ 노 · 사 양측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최초 제시안</th></tr> </thead> <tbody> <tr> <td>근로자측</td><td>시간급 10,800원, 올해 대비 2,080원 인상(23.9% 인상)</td></tr> <tr> <td>사용자측</td><td>시간급 8,720원, 올해 대비 동결</td></tr> </tbody> </table> </li> </ul>	구분	최초 제시안	근로자측	시간급 10,800원, 올해 대비 2,080원 인상(23.9% 인상)	사용자측	시간급 8,720원, 올해 대비 동결
구분	최초 제시안						
근로자측	시간급 10,800원, 올해 대비 2,080원 인상(23.9% 인상)						
사용자측	시간급 8,720원, 올해 대비 동결						
제7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제시안에 대한 노 · 사 토론 및 공익위원이 노 · 사 양측에 제시 근거에 대한 질의응답 실시</li> </ul>						
제8차 전원회의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 · 사 양측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제2차 제시안(1차 수정안)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제2차 제시안</th></tr> </thead> <tbody> <tr> <td>근로자측</td><td>시간급 10,440원, 올해 대비 1,720원 인상(19.7% 인상)</td></tr> <tr> <td>사용자측</td><td>시간급 8,740원, 올해 대비 20원(0.2% 인상)</td></tr> </tbody> </table> <p>* 일부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측 제2차 제시안에 반발하여 퇴장</p> </li> </ul>	구분	제2차 제시안	근로자측	시간급 10,440원, 올해 대비 1,720원 인상(19.7% 인상)	사용자측	시간급 8,740원, 올해 대비 20원(0.2% 인상)
구분	제2차 제시안						
근로자측	시간급 10,440원, 올해 대비 1,720원 인상(19.7% 인상)						
사용자측	시간급 8,740원, 올해 대비 20원(0.2% 인상)						

구분(일자)

내용

제9차  
전원회의  
(7.12.)

○ 노·사 양측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2차 수정안) 제출

구분	제3차 제시안
근로자측	시간급 10,320원, 올해 대비 1,600원 인상(18.3% 인상)
사용자측	시간급 8,810원, 올해 대비 90원 인상(1.0% 인상)

○ 노·사 양측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제4차 제시안(3차 수정안) 제출

구분	제4차 제시안
근로자측	시간급 10,000원, 올해 대비 1,280원 인상(14.7% 인상)
사용자측	시간급 8,850원, 올해 대비 130원 인상(1.49% 인상)

○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구분	심의촉진구간
하한선	<div>시간급 9,030원, 올해 대비 310원 인상(3.6% 인상)</div> <div>* 제시근거: 물가상승률(1.8%) + 생계비 개선분(1.6%~1.8%)</div>
상한선	<div>시간급 9,300원, 올해 대비 580원 인상(6.7% 인상)</div> <div>* 제시근거: 경제성장률(4%) + 물가상승률(1.8%) - 취업자증가율(0.8%) + 생계비 개선분(1.6%~1.8%)</div>

\*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 4명)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여 퇴장

구분(일자)

내용

제9차  
전원회의  
(7.12.)

○ 노·사 제시안

(단위: 시급, 원 / 전년 대비 인상률)

구분	2021년 최저임금액	2022년 최저임금 제시안			
		최초 (6.29.)	제2차 (7.8.)	제3차 (7.12.)	제4차 (7.12.)
근로자측	8,720	10,800 (23.9%)	10,440 (19.7%)	10,320 (18.3%)	10,000 (14.7%)
사용자측		8,720 (0%)	8,740 (0.2%)	8,810 (1.0%)	8,850 (1.49%)

- 노·사는 제4차 제시안 이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노·사 양측 합의 하에 공익위원 단일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정회 후 공익위원간 회의 결과로 공익위원안(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을 제시하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 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

- 공익위원안 근거: 경제성장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1.8%) - 취업자증가율(0.7%)

-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진행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안으로 의결

\*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붙임2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수준(고시 기준)
-----	----------------------

(단위: 원, %)

적용연도	시간급	월급 (209시간기준)	인상률 (시간기준)	전년대비 인상액
'22	9,160	1,914,440	5.1	440
'21	8,720	1,822,480	1.5	130
'20	8,590	1,795,310	2.87	240
'19	8,350	1,745,150	10.9	820
'18	7,530	1,573,770	16.4	1,060
'17	6,470	1,352,230	7.3	440
'16	6,030	1,260,270	8.1	450
'15	5,580	—	7.1	370
'14	5,210	—	7.2	350
'13	4,860	—	6.1	280
'12	4,580	—	6.0	260
'11	4,320	—	5.1	210
'10	4,110	—	2.75	110
'09	4,000	—	6.1	230
'08	3,770	—	8.3	290
'07	3,480	—	12.3	380
'05.9.~'06.12.	3,100	—	9.2	260

적용연도	시간급	월급 (209시간기준)	인상률 (시간기준)	전년대비 인상액
'04.9.~'05.8.	2,840	—	13.1	330
'03.9.~'04.8.	2,510	—	10.3	235
'02.9.~'03.8.	2,275	—	8.3	175
'01.9.~'02.8.	2,100	—	12.6	235
'00.9.~'01.8.	1,865	—	16.6	265
'99.9.~'00.8.	1,600	—	4.9	75
'98.9.~'99.8.	1,525	—	2.7	40
'97.9.~'98.8.	1,485	—	6.1	85
'96.9.~'97.8.	1,400	—	9.8	125
'95.9.~'96.8.	1,275	—	8.97	105
'94.9.~'95.8.	1,170	—	7.8	85
'94.1.~'94.8.	1,085	—	7.96	80
'93	1,005	—	8.6	80
'92	925	—	12.8	105
'91	820	—	18.8	130
'90	690	—	15.0	90
'89	600	—	1그룹 29.7 2그룹 23.1	1그룹 137.5 2그룹 112.5
'88	1그룹 462.50 2그룹 487.50	—	—	—

## 10 최저임금 안내

### 2022년 최저임금 리플릿

2022년 최저임금 리플릿은 1350원, 시간급 9,160원, 월급 1,811,710원, 3시간 이하 73,280원, 4시간 이하 96,736원, 5시간 이하 120,192원, 6시간 이하 143,648원, 7시간 이하 167,104원, 8시간 이하 190,560원, 9시간 이하 214,016원, 10시간 이하 237,472원, 11시간 이하 260,928원, 12시간 이하 284,384원, 13시간 이하 307,840원, 14시간 이하 331,296원, 15시간 이하 354,752원, 16시간 이하 378,208원, 17시간 이하 401,664원, 18시간 이하 425,120원, 19시간 이하 448,576원, 20시간 이하 472,032원, 21시간 이하 495,488원, 22시간 이하 518,944원, 23시간 이하 542,400원, 24시간 이하 565,856원, 25시간 이하 589,312원, 26시간 이하 612,768원, 27시간 이하 636,224원, 28시간 이하 659,680원, 29시간 이하 683,136원, 30시간 이하 706,592원, 31시간 이하 730,048원, 32시간 이하 753,504원, 33시간 이하 776,960원, 34시간 이하 800,416원, 35시간 이하 823,872원, 36시간 이하 847,328원, 37시간 이하 870,784원, 38시간 이하 894,240원, 39시간 이하 917,696원, 40시간 이하 941,152원, 41시간 이하 964,608원, 42시간 이하 988,064원, 43시간 이하 1011,520원, 44시간 이하 1034,976원, 45시간 이하 1058,432원, 46시간 이하 1081,888원, 47시간 이하 1105,344원, 48시간 이하 1128,800원, 49시간 이하 1152,256원, 50시간 이하 1175,712원, 51시간 이하 1199,168원, 52시간 이하 1222,624원, 53시간 이하 1246,080원, 54시간 이하 1269,536원, 55시간 이하 1292,992원, 56시간 이하 1316,448원, 57시간 이하 1339,904원, 58시간 이하 1363,360원, 59시간 이하 1386,816원, 60시간 이하 1410,272원, 61시간 이하 1433,728원, 62시간 이하 1457,184원, 63시간 이하 1480,640원, 64시간 이하 1504,096원, 65시간 이하 1527,552원, 66시간 이하 1551,008원, 67시간 이하 1574,464원, 68시간 이하 1597,920원, 69시간 이하 1621,376원, 70시간 이하 1644,832원, 71시간 이하 1668,288원, 72시간 이하 1691,744원, 73시간 이하 1715,200원, 74시간 이하 1738,656원, 75시간 이하 1762,112원, 76시간 이하 1785,568원, 77시간 이하 1809,024원, 78시간 이하 1832,480원, 79시간 이하 1855,936원, 80시간 이하 1879,392원, 81시간 이하 1902,848원, 82시간 이하 1926,304원, 83시간 이하 1949,760원, 84시간 이하 1973,216원, 85시간 이하 1996,672원, 86시간 이하 2020,128원, 87시간 이하 2043,584원, 88시간 이하 2067,040원, 89시간 이하 2090,496원, 90시간 이하 2113,952원, 91시간 이하 2137,408원, 92시간 이하 2160,864원, 93시간 이하 2184,320원, 94시간 이하 2207,776원, 95시간 이하 2231,232원, 96시간 이하 2254,688원, 97시간 이하 2278,144원, 98시간 이하 2301,600원, 99시간 이하 2325,056원, 100시간 이하 2348,512원, 101시간 이하 2371,968원, 102시간 이하 2395,424원, 103시간 이하 2418,880원, 104시간 이하 2442,336원, 105시간 이하 2465,792원, 106시간 이하 2489,248원, 107시간 이하 2512,704원, 108시간 이하 2536,160원, 109시간 이하 2559,616원, 110시간 이하 2583,072원, 111시간 이하 2606,528원, 112시간 이하 2629,984원, 113시간 이하 2653,440원, 114시간 이하 2676,896원, 115시간 이하 2700,352원, 116시간 이하 2723,808원, 117시간 이하 2747,264원, 118시간 이하 2770,720원, 119시간 이하 2794,176원, 120시간 이하 2817,632원, 121시간 이하 2841,088원, 122시간 이하 2864,544원, 123시간 이하 2887,992원, 124시간 이하 2911,448원, 125시간 이하 2934,904원, 126시간 이하 2958,360원, 127시간 이하 2981,816원, 128시간 이하 3005,272원, 129시간 이하 3028,728원, 130시간 이하 3052,184원, 131시간 이하 3075,640원, 132시간 이하 3099,096원, 133시간 이하 3122,552원, 134시간 이하 3146,008원, 135시간 이하 3169,464원, 136시간 이하 3192,920원, 137시간 이하 3216,376원, 138시간 이하 3239,832원, 139시간 이하 3263,288원, 140시간 이하 3286,744원, 141시간 이하 3310,200원, 142시간 이하 3333,656원, 143시간 이하 3357,112원, 144시간 이하 3380,568원, 145시간 이하 3404,024원, 146시간 이하 3427,480원, 147시간 이하 3450,936원, 148시간 이하 3474,392원, 149시간 이하 3497,848원, 150시간 이하 3521,304원, 151시간 이하 3544,760원, 152시간 이하 3568,216원, 153시간 이하 3591,672원, 154시간 이하 3615,128원, 155시간 이하 3638,584원, 156시간 이하 3662,040원, 157시간 이하 3685,496원, 158시간 이하 3708,952원, 159시간 이하 3732,408원, 160시간 이하 3755,864원, 161시간 이하 3779,320원, 162시간 이하 3802,776원, 163시간 이하 3826,232원, 164시간 이하 3849,688원, 165시간 이하 3873,144원, 166시간 이하 3896,600원, 167시간 이하 3920,056원, 168시간 이하 3943,512원, 169시간 이하 3966,968원, 170시간 이하 3990,424원, 171시간 이하 4013,880원, 172시간 이하 4037,336원, 173시간 이하 4060,792원, 174시간 이하 4084,248원, 175시간 이하 4107,704원, 176시간 이하 4131,160원, 177시간 이하 4154,616원, 178시간 이하 4178,072원, 179시간 이하 4201,528원, 180시간 이하 4224,984원, 181시간 이하 4248,440원, 182시간 이하 4271,896원, 183시간 이하 4295,352원, 184시간 이하 4318,808원, 185시간 이하 4342,264원, 186시간 이하 4365,720원, 187시간 이하 4389,176원, 188시간 이하 4412,632원, 189시간 이하 4436,088원, 190시간 이하 4459,544원, 191시간 이하 4483,000원, 192시간 이하 4506,456원, 193시간 이하 4529,912원, 194시간 이하 4553,368원, 195시간 이하 4576,824원, 196시간 이하 4600,280원, 197시간 이하 4623,736원, 198시간 이하 4647,192원, 199시간 이하 4670,648원, 200시간 이하 4694,104원, 201시간 이하 4717,560원, 202시간 이하 4741,016원, 203시간 이하 4764,472원, 204시간 이하 4787,928원, 205시간 이하 4811,384원, 206시간 이하 4834,840원, 207시간 이하 4858,296원, 208시간 이하 4881,752원, 209시간 이하 4905,208원, 210시간 이하 4928,664원, 211시간 이하 4952,120원, 212시간 이하 4975,576원, 213시간 이하 4999,032원, 214시간 이하 5022,488원, 215시간 이하 5045,944원, 216시간 이하 5069,400원, 217시간 이하 5092,856원, 218시간 이하 5116,312원, 219시간 이하 5139,768원, 220시간 이하 5163,224원, 221시간 이하 5186,680원, 222시간 이하 5210,136원, 223시간 이하 5233,592원, 224시간 이하 5257,048원, 225시간 이하 5280,504원, 226시간 이하 5303,960원, 227시간 이하 5327,416원, 228시간 이하 5350,872원, 229시간 이하 5374,328원, 230시간 이하 5397,784원, 231시간 이하 5421,240원, 232시간 이하 5444,696원, 233시간 이하 5468,152원, 234시간 이하 5491,608원, 235시간 이하 5515,064원, 236시간 이하 5538,520원, 237시간 이하 5561,976원, 238시간 이하 5585,432원, 239시간 이하 5608,888원, 240시간 이하 5632,344원, 241시간 이하 5655,800원, 242시간 이하 5679,256원, 243시간 이하 5702,712원, 244시간 이하 5726,168원, 245시간 이하 5749,624원, 246시간 이하 5773,080원, 247시간 이하 5796,536원, 248시간 이하 5819,992원, 249시간 이하 5843,448원, 250시간 이하 5866,904원, 251시간 이하 5890,360원, 252시간 이하 5913,816원, 253시간 이하 5937,272원, 254시간 이하 5960,728원, 255시간 이하 5984,184원, 256시간 이하 6007,640원, 257시간 이하 6031,096원, 258시간 이하 6054,552원, 259시간 이하 6078,008원, 260시간 이하 6101,464원, 261시간 이하 6124,920원, 262시간 이하 6148,376원, 263시간 이하 6171,832원, 264시간 이하 6195,288원, 265시간 이하 6218,744원, 266시간 이하 6242,200원, 267시간 이하 6265,656원, 268시간 이하 6289,112원, 269시간 이하 6312,568원, 270시간 이하 6336,024원, 271시간 이하 6359,480원, 272시간 이하 6382,936원, 273시간 이하 6406,392원, 274시간 이하 6429,848원, 275시간 이하 6453,304원, 276시간 이하 6476,760원, 277시간 이하 6500,216원, 278시간 이하 6523,672원, 279시간 이하 6547,128원, 280시간 이하 6570,584원, 281시간 이하 6594,040원, 282시간 이하 6617,496원, 283시간 이하 6640,952원, 284시간 이하 6664,408원, 285시간 이하 6687,864원, 286시간 이하 6711,320원, 287시간 이하 6734,776원, 288시간 이하 6758,232원, 289시간 이하 6781,688원, 290시간 이하 6805,144원, 291시간 이하 6828,600원, 292시간 이하 6852,056원, 293시간 이하 6875,512원, 294시간 이하 6898,968원, 295시간 이하 6922,424원, 296시간 이하 6945,880원, 297시간 이하 6969,336원, 298시간 이하 6992,792원, 299시간 이하 7016,248원, 300시간 이하 7039,704원, 301시간 이하 7063,160원, 302시간 이하 7086,616원, 303시간 이하 7110,072원, 304시간 이하 7133,528원, 305시간 이하 7156,984원, 306시간 이하 7180,440원, 307시간 이하 7203,896원, 308시간 이하 7227,352원, 309시간 이하 7250,808원, 310시간 이하 7274,264원, 311시간 이하 7297,720원, 312시간 이하 7321,176원, 313시간 이하 7344,632원, 314시간 이하 7368,088원, 315시간 이하 7391,544원, 316시간 이하 7414,996원, 317시간 이하 7438,452원, 318시간 이하 7461,908원, 319시간 이하 7485,364원, 320시간 이하 7508,820원, 321시간 이하 7532,276원, 322시간 이하 7555,732원, 323시간 이하 7579,188원, 324시간 이하 7602,644원, 325시간 이하 7626,100원, 326시간 이하 7649,556원, 327시간 이하 7673,012원, 328시간 이하 7696,468원, 329시간 이하 7719,924원, 330시간 이하 7743,380원, 331시간 이하 7766,836원, 332시간 이하 7790,292원, 333시간 이하 7813,748원, 334시간 이하 7837,204원, 335시간 이하 7860,660원, 336시간 이하 7884,116원, 337시간 이하 7907,572원, 338시간 이하 7931,028원, 339시간 이하 7954,484원, 340시간 이하 7977,940원, 341시간 이하 8001,396원, 342시간 이하 8024,852원, 343시간 이하 8048,308원, 344시간 이하 8071,764원, 345시간 이하 8095,220원, 346시간 이하 8118,676원, 347시간 이하 8142,132원, 348시간 이하 8165,588원, 349시간 이하 8189,044원, 350시간 이하 8212,500원, 351시간 이하 8235,956원, 352시간 이하 8259,412원, 353시간 이하 8282,868원, 354시간 이하 8306,324원, 355시간 이하 8329,780원, 356시간 이하 8353,236원, 357시간 이하 8376,692원, 358시간 이하 8400,148원, 359시간 이하 8423,604원, 360시간 이하 8447,060원, 361시간 이하 8470,516원, 362시간 이하 8493,972원, 363시간 이하 8517,428원, 364시간 이하 8540,884원, 365시간 이하 8564,340원, 366시간 이하 8587,796원, 367시간 이하 8611,252원, 368시간 이하 8634,708원, 369시간 이하 8658,164원, 370시간 이하 8681,620원, 371시간 이하 8705,076원, 372시간 이하 8728,532원, 373시간 이하 8751,988원, 374시간 이하 8775,444원, 375시간 이하 8798,900원, 376시간 이하 8822,356원, 377시간 이하 8845,812원, 378시간 이하 8869,268원, 379시간 이하 8892,724원, 380시간 이하 8916,180원, 381시간 이하 8939,636원, 382시간 이하 8963,092원, 383시간 이하 8986,548원, 384시간 이하 9009,996원, 385시간 이하 9033,452원, 386시간 이하 9056,908원, 387시간 이하 9080,364원, 388시간 이하 9103,820원, 389시간 이하 9127,276원, 390시간 이하 9150,732원, 391시간 이하 9174,188원, 392시간 이하 9197,644원, 393시간 이하 9221,100원, 394시간 이하 9244,556원, 395시간 이하 9268,012원, 396시간 이하 9291,468원, 397시간 이하 9314,924원, 398시간 이하 9338,380원, 399시간 이하 9361,836원, 400시간 이하 9385,292원, 401시간 이하 9408,748원, 402시간 이하 9432,204원, 403시간 이하 9455,660원, 404시간 이하 9479,116원, 405시간 이하 9502,572원, 406시간 이하 9526,028원, 407시간 이하 9549,484원, 408시간 이하 9572,940원, 409시간 이하 9596,396원, 410시간 이하 9619,852원, 411시간 이하 9643,308원, 412시간 이하 9666,764원, 413시간 이하 9690,220원, 414시간 이하 9713,676원, 415시간 이하 9737,132원, 416시간 이하 9760,588원, 417시간 이하 9784,044원, 418시간 이하 9807,500원, 419시간 이하 9830,956원, 420시간 이하 9854,412원, 421시간 이하 9877,868원, 422시간 이하 9901,324원, 423시간 이하 9924,780원, 424시간 이하 9948,236원, 425시간 이하 9971,692원, 426시간 이하 9995,148원, 427시간 이하 10018,604원, 428시간 이하 10042,060원, 429시간 이하 10065,516원, 430시간 이하 10088,972원, 431시간 이하 10112,428원, 432시간 이하 10135,884원, 433시간 이하 10159,340원, 434시간 이하 10182,796원, 435시간 이하 10206,252원, 436시간 이하 10229,708원, 437시간 이하 10253,164원, 438시간 이하 10276,620원, 439시간 이하 10300,076원, 440시간 이하 10323,532원, 441시간 이하 10346,988원, 442시간 이하 10370,444원, 443시간 이하 10393,900원, 444시간 이하 10417,356원, 445시간 이하 10440,812원, 446시간 이하 10464,268원, 447시간 이하 10487,724원, 448시간 이하 10511,180원, 449시간 이하 10534,636원, 450시간 이하 10558,092원, 451시간 이하 10581,548원, 452시간 이하 10605,004원, 453시간 이하 10628,460원, 454시간 이하 10651,916원, 455시간 이하 10675,372원, 456시간 이하 10698,828원, 457시간 이하 10722,284원, 458시간 이하 10745,740원, 459시간 이하 10769,196원, 460시간 이하 10792,652원, 461시간 이하 10816,108원, 462시간 이하 10839,564원, 463시간 이하 10863,020원, 464시간 이하 10886,476원, 465시간 이하 10909,932원, 466시간 이하 10933,388원, 467시간 이하 10956,844원, 468시간 이하 10980,300원, 469시간 이하 11003,756원, 470시간 이하 11027,212원, 471시간 이하 11050,668원, 472시간 이하 11074,124원, 473시간 이하 11097,580원, 474시간 이하 11121,036원, 475시간 이하 11144,492원, 476시간 이하 11167,948원, 477시간 이하 11191,404원, 478시간 이하 11214,860원, 479시간 이하 11238,316원, 480시간 이하 11261,772원, 481시간 이하 11285,228원, 482시간 이하 11308,684원, 483시간 이하 11332,140원, 484시간 이하 11355,596원, 485시간 이하 11379,052원, 486시간 이하 11402,508원, 487시간 이하 11425,964원, 488시간 이하 11449,420원, 489시간 이하 11472,876원, 490시간 이하 11496,332원, 491시간 이하 11519,788원, 492시간 이하 11543,244원, 493시간 이하 11566,700원, 494시간 이하 11590,156원, 495시간 이하 11613,612원, 496시간 이하 11637,068원, 497시간 이하 11660,524원, 498시간 이하 11683,980원, 499시간 이하 11707,436원, 500시간 이하 11730,892원, 501시간 이하 11754,348원, 502시간 이하 11777,804원, 503시간 이하 11801,260원, 504시간 이하 11824,716원, 505시간 이하 11848,172원, 506시간 이하 11871,628원, 507시간 이하 11895,084원, 508시간 이하 11918,540원, 509시간 이하 11941,996원, 510시간 이하 11965,452원, 511시간 이하 11988,908원, 512시간 이하 12012,364원, 513시간 이하 12035,820원, 514시간 이하 12059,276원, 515시간 이하 12082,732원, 516시간 이하 12106,188원, 517시간 이하 12129,644원, 518시간 이하 12153,100원, 519시간 이하 12176,556원, 520시간 이하 12200,012원, 521시간 이하 12223,468원, 522시간 이하 12246,924원, 523시간 이하 12270,380원, 524시간 이하 12293,836원, 525시간 이하 12317,292원, 526시간 이하 12340,748원, 527시간 이하 12364,204원, 528시간 이하 12387,660원, 529시간 이하 12411,116원, 530시간 이하 12434,572원, 531시간 이하 12458,028원, 532시간 이하 12481,484원, 533시간 이하 12504,940원, 534시간 이하 12528,396원, 535시간 이하 12551,852원, 536시간 이하 12575,308원, 537시간 이하 12598,764원, 538시간 이하 12622,220원, 539시간 이하 12645,676원, 540시간 이하 12669,132원, 541시간 이하 12692,588원, 542시간 이하 12716,044원, 543시간 이하 12739,500원, 544시간 이하 12762,956원, 545시간 이하 12786,412원, 546시간 이하 12809,868원, 547시간 이하 12833,324원, 548시간 이하 12856,780원, 549시간 이하 12880,236원, 550시간 이하 12903,692원, 551시간 이하 12927,148원, 552시간 이하 12950,604원, 553시간 이하 12974,060원, 554시간 이하 12997,516원, 555시간 이하 13020,972원, 556시간 이하 13044,428원, 557시간 이하 13067,884원, 558시간 이하 13091,340원, 559시간 이하 13114,796원, 560시간 이하 13138,252원, 561시간 이하 13161,708원, 562시간 이하 13185,164원, 563시간 이하 13208,620원, 564시간 이하 13232,076원, 565시간 이하 13255,532원, 566시간 이하 13278,988원, 567시간 이하 13302,444원, 568시간 이하 13325,900원, 569시간 이하 13349,356원, 570시간 이하 13372,812원, 571시간 이하 13396,268원, 572시간 이하 13419,724원, 573시간 이하 13443,180원, 574시간 이하 13466,636원, 575시간 이하 13490,092원, 576시간 이하 13513,548원, 577시간 이하 13537,004원, 578시간 이하 13560,460원, 579시간 이하 13583,916원, 580시간 이하 13607,372원, 581시간 이하 13630,828원, 582시간 이하 13654,284원, 583시간 이하 13677,740원, 584시간 이하 13701,196원, 585시간 이하 13724,652원, 586시간 이하 13748,108원, 587시간 이하 13771,564원, 588시간 이하 13795,020원, 589시간 이하 13818,476원, 590시간 이하 13841,932원, 591시간 이하 13865,388원, 592시간 이하 13888,844원, 593시간 이하 13912,300원, 594시간 이하 13935,756원, 595시간 이하 13959,212원, 596시간 이하 13982,668원, 597시간 이하 14006,124원, 598시간 이하 14029,580원, 599시간 이하 14053,036원, 600시간 이하 14076,492원, 601시간 이하 14100,948원, 602시간 이하 14124,404원, 603시간 이하 14147,860원, 604시간 이하 14171,316원, 605시간 이하 14194,772원, 606시간 이하 14218,228원, 607시간 이하 14241,684원, 608시간 이하 14265,140원, 609시간 이하 14288,596원, 610시간 이하 14312,052원, 611시간 이하 14335,508원, 612시간 이하 14358,964원, 613시간 이하 14382,420원, 614시간 이하 14405,876원, 615시간 이하 14429,332원, 616시간 이하 14452,788원, 617시간 이하 14476,244원, 618시간 이하 14499,700원, 619시간 이하 14523,156원, 620시간 이하 14546,612원, 621시간 이하 14570,068원, 622시간 이하 14593,524원, 623시간 이하 14616,980원, 624시간 이하 14640,436원, 625시간 이하 14663,892원, 626시간 이하 14687,348원, 627시간 이하 14710,804원, 628시간 이하 14734,260원, 629시간 이하 14757,716원, 630시간 이하 14781,172원, 631시간 이하 14804,628원, 632시간 이하 14828,084원, 633시간 이하 14851,540원, 634시간 이하 14875,000원, 635시간 이하 14898,456원, 636시간 이하 14921,912원, 637시간 이하 14945,368원, 638시간 이하 14968,824원, 639시간 이하 14992,280원, 640시간 이하 15015,736원, 641시간 이하 15039,192원, 642시간 이하 15062,648원, 643시간 이하 15086,104원, 644시간 이하 15109,560원, 645시간 이하 15133,016원, 646시간 이하 15156,472원, 647시간 이하 15179,928원, 648시간 이하 15203,384원, 649시간 이하 15226,840원, 650시간 이하 15250,296원, 651시간 이하 15273,752원, 652시간 이하 15297,208원, 653시간 이하 15320,664원, 654시간 이하 15344,120원, 655시간 이하 15367,576원, 656시간 이하 15391,032원, 657시간 이하 15414,488원, 658시간 이하 15437,944원, 659시간 이하 15461,400원, 660시간 이하 15484,856원, 661시간 이하 15508,312원, 662시간 이하 15531,768원, 663시간 이하 15555,224원, 664시간 이하 15578,680원, 665시간 이하 15602,136원, 666시간 이하 15625,592원, 667시간 이하 15649,048원, 668시간 이하 15672,504원, 669시간 이하 15695,960원, 670시간 이하 15719,416원, 671시간 이하 15742,872원, 672시간 이하 15766,328원, 673시간 이하 15789,784원, 674시간 이하 15813,240원, 675시간 이하 15836,696원, 676시간 이하 15860,152원, 677시간 이하 15883,608원, 678시간 이하 15907,064원, 679시간 이하 15930,520원, 680시간 이하 15953,976원, 681시간 이하 15977,432원, 682시간 이하 16000,888원, 683시간 이하 16024,344원, 684시간 이하 16047,800원, 685시간 이하 16071,256원, 686시간 이하 16094,712원, 687시간 이하 16118,168원, 688시간 이하 16141,624원, 689시간 이하 16165,080원, 690시간 이하 16188,536원, 691시간 이하 16211,992원, 692시간 이하 16235,448원, 693시간 이하 16258,904원, 694시간 이하 16282,360원, 695시간 이하 16305,816원, 696시간 이하 16329,272원, 697시간 이하 16352,728원, 698시간 이하 16376,184원, 699시간 이하 16399,640원, 700시간 이하 16423,096원, 701시간 이하 16446,552원, 702시간 이하 16470,008원, 703시간 이하 16493,464원, 704시간 이하 16516,920원, 705시간 이하 16540,376원, 706시간 이하 16563,832원, 707시간 이하 16587,288원, 708시간 이하 16610,74

## 11 회의록

### 2021년 제1차 연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1.1.22(금) 10:30~12:30
- 장소: 상연재(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자: 한인권(사무국장), 방형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동희(한국노총 정책차장), 홍석환(민주노총 정책국장), 임영태(한국경총 경제조사팀장), 양옥석(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오영민(근로기준정책과장)

\* 배석: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및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6명

#### ■ 회의결과

##### (안건1) 위원회 주요 일정안

- 사무국장은 금년 위원회 주요일정에 대해 위원들에게 안내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2월 중순경 위원 위촉 요청 공문발송 예정이며,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전 준비 요청
- 2월 3~4주 제2차 연구위원회 실시

##### (안건2) 현장 의견청취 계획안

- 노·사 의견수렴 및 최대한 참여를 원칙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심의일정 고려)

- 제2차 연구위원회 시 현장 의견청취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 (안건3) 조사·연구계획안

- 작년에 실시한 연구용역(4종) 결과는 사무국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되, 요청하는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노·사 모두 공식 자료로 활용에 부정적 의견 피력)
- 사무국은 금년도 실시할 연구용역 관련 수요조사를 위해 1월 중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임을 안내

#### ■ 주요 논의 내용

##### (안건1) 2021년도 위원회 주요 일정안 관련 논의

- (위원교체) 근로자 연구위원(민주노총 측)은 3기 지도부 구성(2.5. 정기 대의원대회 통해 부위원장 8명 선출) 이후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교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미리 위촉 관련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
  - \* 한국노총 측은 위원 교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
- 이에 근로기준정책과장은 2월 중순경 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예정이라고 답변
- 사용자 연구위원은 심의 도중 위원 교체 시 심의위원과 의결위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1차 전원회의를 5.14. 이후(제12대 위원 구성 이후)에 개최하자는 의견 제시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위원 교체 후 심의를 시작하면 모든 일정이 지연되므로 위원 교체와 별개로 정해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답변



– 원활한 심의를 위한 방법을 각 단체에서 고민해줄 것과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문발송 이전 각 단체에서 미리 위원 위촉과 관련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

- (일정관련) 사용자 연구위원은 위원회 주요일정(안) 중 제2차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노·사 최초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노·사위원과 공익위원 간 개별 간담회 일정은 작년에 1회성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삭제해달라는 의견 제시

– 근로자 연구위원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최초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

– 사무국은 최근('16년 이후)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노사 최초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하였으며, 회의자료 상 주요일정은 계획(안)일 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

- (연구위원회 일정) 사무국장은 2월 3~4주 경 제2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및 현장 의견청취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연구위원도 이에 동의

#### (안건2) 현장 의견청취 계획안 관련 논의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현장 의견청취 횟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 연구위원은 이미 19개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충분하며, 오히려 짧은 심의일정으로 소화하기에는 과다하다는 의견 제시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최저임금 결정이지만, 수용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사·공 위원이 공동 참여하여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도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 연구위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노·사위원이 함께 방문하는 현장방문의 횟수는 줄이고, 공익위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횟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 제시

– 사무국장은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관련한 노·사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작년에는 일부 위원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지만, 올해는 노·사·공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안건3) 조사·연구계획안 관련 논의

- (연구용역 결과 활용) 공익 연구위원은 심층 연구용역(4종) 결과 공유 요청

– 노·사 연구위원은 공식적인 자료 공유 및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제시

– 사무국장은 정책 연구용역 결과는 프리즘(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을 통해 공개되며, 요청하는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안내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사용자 연구위원은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추가 분석자료가 심의 중(5월말 이후)에 제출될 것이므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 사무국장은 심의자료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연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는 방법 제시

- (실태조사) 근로자 연구위원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작년 11~12월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심의 기초자료로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 제시
  - 사용자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문항 내용이 2020년도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조사 실시 시점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근로자 연구위원은 코로나 상황이 주관적 가치판단에 반영되었을 수 있으므로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전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사무국은 조사결과가 전원회의에 심의자료로 채택되기 전 연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므로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 (기타) 당부사항

- 사무국장은 향후 현장 의견청취 및 연구용역 수요조사 등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
- 2월 중 제2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청취 및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일정·방법 등을 논의 예정



## 2021년 제2차 연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1.2.18(목) 10:30~12:30
- 장소: 상연재(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자: 한인권(사무국장), 방형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동희(한국노총 정책차장), 홍석환(민주노총 정책국장), 임영태(한국경총 경제조사팀장), 양옥석(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 불참: 오영민(근로기준정책과장)
  - \*\* 배석: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및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6명

#### ■ 주요 논의 내용

\* 발언순

#### (안건1) 이해관계자 간담회 계획안

- 근로자 연구위원(민주노총 측)은 현재 위원 교체 및 지도부 구성 중이므로 노·사·공익위원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간담회 일정 순연\* 요청
  - \* 민주노총 측에서는 2월 중 위원변경 요청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담당사무관에게 가급적 신속하게 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
  - 또한, 근로자 연구위원(한국노총 측)도 해당 일정(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코로나도 아직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사용자 연구위원은 근로자위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위원은 일부 일정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입장 전달
- 사무국장은 가능한 위원 위주로 가급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안 제시

- 사용자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간담회 추진여부,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근로자 연구위원도 이에 동의

#### (안건2) 심층 연구과제 추진계획안

- 노·사 연구위원은 연구과제 제안서(총 7종)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 사무국장은 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을 운영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 수(노·사·공 1명씩 총 3명 또는 노·사·공 2명씩 총 6명) 등에 있어 다소간 입장차이가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및 정리해 줄 것을 요청
- 근로자 및 사용자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노·사간 이견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줄 것을 요청

### 2021년 제3차 연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1.4.13(화) 14:00~17:00
- 장소: 상연재(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자: 양정열(상임위원), 한인권(사무국장), 방형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동희(한국노동 정책차장), 홍석환(민주노동 정책국장), 임영태(한국경총 경제분석팀장), 양옥석(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오영민(근로기준정책과장)
- \* 참관: 김선애(한국경총 기업경영팀 책임위원, 연구위원 내정자)
- \*\* 배석: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및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8명

#### ■ 주요 논의 내용

안건1

심의 기초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 (안건1-1)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간보고

- 연구진(방통대 이기재 교수)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
- 사무국장은 작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생계비 항목이 무엇인지 질의  
- 연구진은 식료품, 주거·수도·광열·보건항목이 크게 증가했다고 답변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인해 지출구조가 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부 항목별 증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연구진은 세부 항목별 증감율 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
- 공익 연구위원은 보고서 34~35쪽의 수치가 상·하위 절사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상하위를 동일한 비율로 절사하였으므로 중간값에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10분위에 대해서는 상·하위 1% 절사한 평균보다 상·하위 2%를 절사한 평균이 더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나타나 절사 이후 분위 설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제시
  - 연구진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
- 상임위원은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표본평균, 절사평균, 원저화평균을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어떤 지표를 더 유의미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연구진은 어떠한 방법이 더 유의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
- 상임위원은 보고서 10쪽의 내용을 통해 상위 계층의 생계비는 줄고, 하위 계층의 생계비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질의
  - 연구진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한 것도 아니고, 조사대상이 동일한 것도 아니므로 하위 계층의 생계비가 증가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 동 자료는 분위수별 현황만 나타내는 것이므로 차라리 근로소득 구간을 10분위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답변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동 자료에 대한 2019년과 2020년의 세부 항목별 비교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연구진은 소득 수준을 5분위로 구분(10분위로 구분 시 응답대상이 적어 통계의 실효성 떨어짐)하여 분석한 세부 항목별 증감률을 추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답변

- 사무국 담당자는 2021년 1분기 자료가 5월에 공표되는데 이를 심의에 활용할 것인지 질의
  - 연구위원들은 2021년 1분기 자료의 활용 여부는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 (안전1-2)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중간보고

- 연구진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 보고
- 근로자 연구위원은 본문 37쪽에 보면, 기타 항목이 임금체계 변경항목보다 비중이 큰 데, 요약 13쪽에는 빠져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연구진은 보고서에 기타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답변
- 사용자 연구위원은 본문 58쪽의 9% 이상 최저임금 인상 응답자 중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응답한 비중에 대해 질의
  - 연구진은 본문에 대리응답 비중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전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구두로 설명하겠다고 답변
- 근로자 연구위원은 44쪽 표3-14와 표3-13의 근로자 수 대비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설명 요구
  - 연구진(연세대 최강식 교수)은 확인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답변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상용근로자 수가 0인 사업장은 4인 이하로 묶고, 관측치가 적은 부분은 본문에서 제외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 연구위원은 상용근로자수가 0인 사업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근로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 합치지 않고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연구진은 상용근로자 수가 0인 사업장을 그대로 두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표 확인 후 보고서상 '상용근로자 수가 0인 사업장'의 설명 문구를 변경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 또한, 연구진은 19~22쪽과 같이 응답수가 0인 경우가 많은 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구분한 표로 제시하지 않고 전체 값만 제시하겠다고 답변
- 사무국 담당자는 조사표상 용어해설에 대해 확인한 후 노·사측 연구위원에게 송부하겠다고 답변
  - ※ 확인 결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
- 위 확인 결과에 따라 보고서 5쪽의 '사업체 규모가 0인'인 것은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체임을 의미함'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의미함'으로 변경 예정

## 안건2

## 심층 연구과제 선정 검토

- 사무국장은 그간의 심층 연구과제 진행경과(노·사 수요파악 및 선정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 노·사가 제출한 연구과제의 경우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동의하기 힘든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무국이 대안을 제시해도 되겠는지에 대해 연구위원에게 질의하였으며, 연구위원들은 이에 동의
- 사무국 담당자는 사무국이 준비한 연구제안서 2건('최저임금의 적정수준 판단을 위한 요인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
- 사용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시 가구 생계비를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주요 지표와 같은 수준으로 연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 제시
  - 사무국장은 연구를 한다고 심의에 즉각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
- 근로자 연구위원은 양측에서 반대하는 지표를 모아서 같이 연구하자고 하면 양측이 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 연구위원은 지난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원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
  - 사무국장은 노·사 일방이 반대하는 주제에 대해 연구를 실시할 경우 연구결과가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최대한 균형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답변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자영업자는 매출액·임대료 등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자와 상이하여 동일 선상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 연구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는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가지이므로 이를 동시에 연구할 경우 제대로 된 분석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사용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찬성하나, 이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라는 주제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제시
- 근로자 연구위원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
- 근로자 연구위원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제안서 송부 시 검토하겠다는 의견 제시하였으며, 일부 사용자 위원도 이에 동의
- 사용자 연구위원은 노·사가 이렇게 참여하게 대립하는 가구생계비와 같은 사안에 대해 묶어서 진행하면 양측 모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 사무국장은 금일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 안건3

#### 현장 의견 청취 계획(안)

- 근로자 연구위원은 권역별 토론회 횟수는 줄이되, 현장(사업장) 방문 개소를 늘리자고 제안
  - 또한, 노·사단체에 방문 사업장 섭외 요청 시 사무국에서 사업장 규모, 참석 가능 인원(배석 포함)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
- 사용자 연구위원은 전원회의 위원이 일정 상 참여가 어려울 경우 연구위원이 대참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간 및 사업장, 노·사단체 방문 개소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도 가능하도록 준비해줄 것을 요청
- 사무국장은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

#### 안건4

#### 위원회 회의 일정(안)

- 사무국장은 향후 계획 중인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일정에 대해 설명
- 사용자 연구위원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사무국 담당자는 예년과 같이 전문위원회에서 최초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되, 실제 제출 여부는 전문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설명
  - 이에 사용자 연구위원은 회의자료의 문구를 ‘노·사단체에서 제출한 최초요구안 심사’에서 ‘노·사단체의 최초요구안 제출 여부 검토 및 심사’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



## 2021년 제4차 연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1.5.11(화) 14:00~16:00
- 장소: 상연재(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자: 한인권(사무국장), 방형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동희(한국노총 정책차장), 홍석환(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선애(한국경총 임금·HR정책팀장), 양옥석(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오영민(근로기준정책과장)

\* 배석: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3명

### ■ 주요 논의 내용

- | 안건1  | 공익위원 이해관계자 간담회 |
|--|----------------|
| ● 근로자 연구위원은 논의에 앞서, 연구위원회와 전원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담회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익위원 중심의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이의 제기와 더불어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                |
| – 사용자 연구위원도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
| ● 사무국장은 간담회 실시 여부 및 시기에 대해 연구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 하였지만 의견차이가 많음을 확인하였으며,   |                |
| – 심의기한이 임박해오며 따라 부득이하게 노·사 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장의 상황에 취약한 공익위원 위주로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양해를 구함   |                |

- 이에, 근로자 연구위원은 연구위원 포함 실무진과 협의 없이, 공익위원 간사가 근로자위원 간사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동의받았다는 것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함
- 사무국장은 이해관계자 간담회에 노·사위원 참여 없이 공익위원만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향후에는 과정을 충분히 공유하여 이 같은 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아울러, 간담회 결과는 노·사가 참여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으므로 심의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 노·사 측에서 공유를 요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
- 이에 노·사 측은 간담회 결과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회의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

- | 안건2   | 현장방문 및 권역별 토론회 |
|---|----------------|
| ● 사무국장은 그간 전원회의 및 연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권역별 토론회 2회, 현장방문 8회를 6월 1~2주 경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 |                |
| ● 근로자 연구위원(한국노총)은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의견 청취 최소화* 주장                               |                |
| * ① 현장방문 4개소 및 토론회 미실시 또는 ② 현장방문 2개소 및 비대면 토론회 1회만 제시                             |                |
| ● 근로자 연구위원(민주노총)은 현장방문 8개소, 토론회 미실시 의견 제시   |                |
| ● 사용자 연구위원은 현장방문 4개소 및 토론회 1회 제안하면서, 현장방문 사업장 선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의              |                |
| – 사무국 담당자는 사업장 추천 요청 공문 발송 시 사업장 선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                    |                |

-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현장 의견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급적 사무국에서 제시한 계획안(현장방문 8개소, 토론회 2회)을 준수하되,
  - 대면 토론회를 여러 번 실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최임위 주관 전국 단위 비대면 토론회를 1회 실시하자는 대안 제시
  - 또한, 최저임금 심의 기간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22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후 전원회의, 연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청취 일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노·사 모두 이에 동의
- 현장방문은 4개소(노·사 각 2개소 추천)로 하고,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에 한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 합의
  - 공익연구위원회도 노·사 합의에 동의하여 합의대로 이행하기로 결정(제2차 전원회의 시 보고 예정)

안전3

### 제5차 연구위원회 일정

-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회의자료의 중간검토를 위한 제5차 연구위원회는 '21.6.3.(목) 14시 서울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



## 2021년 제5차 연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1.6.3.(목) 14:00~16:12
- 장소: 상연재(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자: 한인권(사무국장), 방형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동희(한국노총 정책차장), 홍석환(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선애(한국경총 임금·HR정책팀장), 양옥석(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오영민(근로기준정책과장)

\* 배석: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8명

### ■ 주요 논의 내용

안전1

### 심의 기초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 연구진(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박사), 연구(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보고
- 사용자 연구위원은 각 원자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 월력 상 근로가능일수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연설명을 보고서 개요에 포함할 것을 요청
  - 근로기준정책과장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매년 6월 중 공휴일 유무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에 대해 공감



- 연구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이러한 한계에 동의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또한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두 자료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 조사대상기간 중 근로가능일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 개요에 추가하겠다고 답변
- 근로자 연구위원은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미만을 추정이 가능한지 질의
  - 연구진은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며, 노·사가 합의하여 요청하면 추정 은 해볼 수 있다고 답변
    - \* 이와 관련하여 노·사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함
- 사용자 연구위원은 2021년 임금상승률 전망 시 연구진이 5.5%로 추정하였는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명목임금인상을 전망치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
  - 연구진은 한국노동연구원 명목임금인상을 전망치 발표시기가 심의자료 발간 후(6월 중순 경)여서 사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연구진이 예측한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답변
-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영향을 표 구간을 1만원까지만 작성하였는데 구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양측 의견 질의
  - 연구진은 최저임금 요구안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노사 합의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답변
- 사용자 연구위원은 14쪽, 19쪽 표(시간당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표)의 구간이 다른 것에 대해 지적
  - 연구진은 편집상 오류이며 수정하겠다고 답변
    - \* 14쪽, 19쪽의 표측 구간 상한값을 '10,000원 이상'으로 통일
- 근로자 연구위원은 6쪽 임금총액 감소 관련 글은 7쪽 표에는 없는 내용 이므로 6쪽에 참고 수준의 내용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 연구위원도 표에 없는 내용을 글로 쓰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
- 연구진은 참고 표시 넣어 편집 수정하겠다 답변
- 노·사 위원 모두 연구위원회 자료를 파일형태로 제공 요청
- 사무국장은 해당 자료는 최종안이 아니며,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까지 비공개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
  - 다만, 자료 제공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파일로 제공하겠으나, 최저임금 의결 시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

## 안전2

## 심층 연구과제 선정 검토

- 근로자 연구위원은 연구과제 1번 '통계자료 구축·관리'에서 고용보험DB 자료 외 국세청 자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사무국 담당자는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최저 임금법상 근거가 없어 활용이 불가하다고 답변
- 노·사 연구위원은 연구과제 2번 '임금분포 시험조사'의 신뢰도 및 통계 조사의 유의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며,
  - 조사설계나 방법을 연구하는 기초연구(혹은 방안 모색)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근로정책기준과장은 시험조사라고 하더라도 통계조사의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제안서 수준의 표본 수로는 국가 통계로 승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제기
- 공익 연구위원은 '임금분포 시험조사'를 산업별 등 충분히 분석하려면 목표 표본 2천 명으로는 부족하므로 예산 증액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

- 사무국 담당자는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시험조사를 통해 적절한 표본 수와 적절한 조사방법별 병행 비중 등을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
- 사무국장은 연구과제 후보 중 1번 과제(최저임금 통계자료 구축 및 관리 방안 연구)는 추진하고, 2번 과제(최저임금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임금분포 시험조사)에 대해서는 금일 연구위원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
  - 다만, 노·사 합의 없이 진행되는 연구과제(1번 과제)는 추후 심의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사무국 차원의 기초연구사업으로 정리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결정
  - 사무국 차원의 기초연구사업도 연구위원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필요 시 검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

- 사무국장은 기존처럼 최임위에서 주관하여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TV 토론회를 실시하려면, 토론회 가능 여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사무국의 내부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 및 결정하겠다고 답변

기타	<b>토론회 관련</b>
----	---------------

- 사무국장은 제4차 연구위원회('21.5.11.) 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에 한해 토론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
- 근로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청중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는 반대하나, 방송사 주관 TV 토론 형식으로 노·사 대표가 참석하여 실시할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 연구위원도 권역별 토론회는 기존에 이미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위원회에서 합의했고, 전원회의 시 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여전히 반대 의견이나, 방역이 보장되는 방송사 주관 TV 토론회는 찬성한다는 의견 제시



## 2021년 제6차 연구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1.10.8.(금) 13:30~15:30
- 장소: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7)
- 참석자: 양정열(상임위원), 방형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동희(한국노총 정책차장), 홍순광(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선애(한국경총 임금·HR정책팀장), 양옥석(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오영민(근로기준정책과장)

\* 배석: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6명

### ■ 주요 논의 내용

#### (안건1) 현장 의견 청취 계획

- 현장 의견 청취 필요에 대한 노·사·공익 간 공감각이 확인되었으니, 사무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참여자 모두 이에 동의

#### (안건2) 심층 연구과제 추진

- 기존 추진내용 설명 및 의견 청취

#### (안건3) 제도 개선 논의 등

- 노·사가 각자 주장하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 제도개선TF 설치 등 구체적인 논의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 있음

### ■ 향후 계획

#### (안건1) 현장 의견 청취 계획

- (~10월) 현장 의견 청취 계획 수립 및 노·사·공익 의견 수렴
- (11월~'22.4월) 현장 의견 청취 시행

#### (안건2) 심층 연구과제 추진

- (10월~11월) 연구과제 중간보고
- (12월) 연구과제 최종보고

#### (안건3) 제도 개선 논의 등

- (~10월)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구성 관련 노·사·공익 의견 수렴
- (~11월)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구성 여부,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 논의(제7차 연구위원회 개최)

### ■ 세부 논의 내용

안건1	현장 의견 청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위원은 「상시적인 현장 의견 청취 제안('21.5.11. 제4차 연구위)」과 관련하여 논의 요청 – 기준과장은 정례화된 연간 계획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들의 판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li> <li>● 공익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적절한지, 기업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을 들을 수 있고</li> </ul>	

- 다음 해 1~3월에는 실제 최저임금이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근로자 연구위원은 연초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업주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연말이 되면 부정적인 반응이 감소하여 객관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사용자 연구위원은 동일 사업장을 방문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응 효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답변
- 상임위원은 집중 심의 기간(5~7월)을 제외하고 매달 1곳씩 방문하도록 정례화할 수도 있고, 시계열 변화를 보기 위해 업종별로 방문 시기를 달리 하여 중복방문 하는 방법으로 구성할 수도 있음을 설명
- 기준과장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사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섭외하여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기준과장은 위원 전체가 참여하기 어려우면, 방문지 별로 참석대상 위원(노·사·공익 1명 이상)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 제시
- 상임위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업장이나 기관·단체 등을 노·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길 요청
- 근로자 연구위원은 작년 현장 의견 청취 결과의 신뢰성,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상임위원은 현장방문이 노·사 위원들에 비해 현장에 대한 경험이 적은 공익위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
  - 사용자 연구위원은 참석 대상을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방안 제시
  - 이에, 근로자 연구위원은 노·사의 참여가 배제된 현장방문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 상임위원은 현장 의견 청취 필요에 대한 노·사·공익 간 공감대 확인 되었으니, 사무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제안 하였으며, 참여자 모두 이에 동의

## 안건2

## 심층 연구과제 추진

- 사무국 담당자는 심층 연구과제 진행 경과를 보고(①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 ② 최저임금 통계자료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③ 최저임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 근로자 연구위원은 연구기관 선정 관련 사전 안내가 없었던 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
  - 사무국 담당자는 연구과제는 경쟁입찰 공고를 거쳐, 과제①과 ②는 경쟁 후 수의, 과제③은 2개 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선정되었다고 설명
  - 상반기에 노·사·공익을 대상으로 과제 선정 관련 의견 수렴 후 과제 ①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 하반기에 과제②(고용보험 등 행정자료 활용), 과제③(기사 등 비정형 텍스트 자료 활용)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
- 사용자 연구위원은 과제③의 연구배경에 대한 설명 요청
  - 사무국 담당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인 텍스트 자료(기사, 회의록 등)를 활용한 시계열 연구를 실시 하고자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고 답변
- 근로자 연구위원은 과제②와 ③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 요청
  - 사무국 담당자는 기존 심의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최임위 자체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노·사·공익이 요청하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 상임위원은 심층연구과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 및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결과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
- 근로자 연구위원은 중간 및 최종보고회 시 노·사 참여 여부에 대해 질의
  - 사무국 담당자는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과제별 적합한 전문가(공익위원 등 포함)를 섭외하여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 노·사가 보고회에 참여할지 여부는 노·사 간 합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및 안내하겠다고 답변

## 안건3

## 제도개선 논의 등

- 기준과장은 제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고 제안
  - 근로자 연구위원은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전원회의 의결 사안이므로 연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오늘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도로 이해하겠다고 밝힘
  - 사용자 연구위원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동의
- 상임위원은 위원회 구성보다는 최저임금 심의 시 노·사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심의종료 후에도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
  - 사용자 연구위원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구성은 금년 최저임금 심의 당시에 위원장도 언급했던 바 있다는 의견 제시
  - 기준과장은 당장 결론을 못 내더라도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접점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근로자 연구위원(민주노총)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장내에서 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 제시

## 안건4

## 기타

- 근로자 연구위원(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5%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 인상률 산출근거인 5.1%와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요청
  - 근로자 연구위원(민주노총)도 이에 동의한다고 밝힘



## 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1.6.10.(목) 10:00~11:12
- 장소: 상연재 회의실(2층 컨퍼런스룸 11)
- 참석자(12명)
  - 공익위원: 노민선, 신자은, 양정열, 권순원(대참), 이수연(참관), 이승렬(참관)
  - 근로자위원: 정문주
  - 사용자위원: 박길수, 오세희, 이오선, 하상우(대참)
  - 연구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기재 교수

### ■ 주요 결과

-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는 수정사항 없이 심의자료로 채택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생계비안에 대해 다음 전원회의 때까지, 근로자위원은 위원간 협의 후 제출하기로 하고 사용자위원은 제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기로 함

### ■ 주요 내용

보고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논의

- 근로자위원은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가 208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4%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소비지출이 약 6% 감소한 영향이 커 보인다는 의견 제시

–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보도자료를 보면 2~5분위는 소비지출이 감소하였으나 1분위만 3.4%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과 지난해 농산물값 폭등이 원인이며, 1분위는 식비를 줄일 수 없어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을 질의

– 연구진은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이나, 본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답변

- 근로자위원은 소비지출 감소로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가 208만원 정도로 감소했지만,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182만원과 비교하면, 아직 생계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

- 사용자위원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인데, 고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하여 평균한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사용자위원 측의 입장이며,

– 중위임금의 60%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위 30% 정도 수준의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하위 30%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저임금 단신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 평균 실태생계비가 4.6% 감소했다는 점에서도 생계비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는 의견 제시

- 공익위원은 성별, 연령별로 기타소득이 크게 다른 이유와 기타소득의 구성 요소에 대해 질의

– 연구진은 기타소득은 금융이자, 이전소득 등 변동이 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유사한 경향이라고 답변

- 공익위원은 생계비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이유를 질의
  - 연구진은 29세 이하 연령의 생계비는 최저임금 심의 초기에 사회 초년생의 생활비를 보자는 취지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이후 논의 과정에서 연령대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답변

협의

## 생계비안 제출

- 근로자위원은 위원간 협의 후, 다음 전원회의에서 제출하겠다고 답변
- 사용자위원은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출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밝히겠다고 답변



##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결과

- 일시: '21.6.10.(목) 14:00~16:00
- 장소: 상연재 회의실(2층 컨퍼런스룸 11)
- 참석자(14명)
  - 공익위원: 권순원, 양정열, 오은진, 이수연, 이승렬, 신자은(참관)
  - 근로자위원: 정문주(대참)
  - 사용자위원: 권순중, 김문식, 이태희, 하상우
  - 연구진: 연세대학교 박상언, 최강식 교수 /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박사

## ■ 주요 결과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관련 최저임금의 영향 및 인상 수준 관련 조사결과 등에 대해 논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 실태 등 분석보고서」 관련 소득분배 및 노동생산성의 영향 요인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모두 수정사항 없이 심의자료로 채택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은 노·사 위원 모두 아직 요구안을 결정하지 못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 주요 내용

보고1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 ■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조사시점 2년 후) 항목

- 사용자위원은 근로자 '동결' 응답이 전년 대비 상승한 점을 연구진에게 질의
  - 연구진은 근로자 '3~6% 미만' 인상 응답도 증가하여, 전체 구간별 응답 빈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 답변
  - 공익위원은 사업주는 '동결'이 높으나 '6% 미만' 인식도 30% 이상 차지하고, 근로자는 '동결', '3% 미만', '3~6% 미만'에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이 보인다는 의견

#### ■ 최저임금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항목

- 공익위원은 제품(서비스) 가격은 '영향 없음' 비율이 높고, 인건비는 '영향 증가' 비율이 높아 결과가 엇갈림을 지적
  - 연구진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
  - 공익위원은 가격 효과는 산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항목별 대분류별 추가 통계표 작성을 요청
    - \* 연구진이 추가 통계표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제출 예정
- 사용자위원은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 신규채용 감소, 근로시간 감소 항목의 응답 결과를 보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임에도 최저임금이 10%대로 상승했던 '18년~'19년 결과와 유사하고, 7.3% 인상된 2017년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

#### ■ 전년 대비 경영사정 악화 사유 항목

- 사용자위원은 경영사정 악화 사유로 '인건비 상승' 응답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의견 제시
  - 연구진은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
- 근로자위원은 전체 사례수를 산업별로 보면, 60%가량이 코로나 위기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가 경영사정 악화의 요인일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은 조사시점상 코로나 영향이 예상되었는데, 코로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
  - 상임위원은 시계열 유지와 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설명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과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결국 피해 산업이 최저임금 지불 부담을 주로 갖는 업종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시 해당 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 항목

- 근로자위원은 임금에 대한 영향에 대해 사업주(인상액보다 '적게' + '인상하지 않음')와 근로자(인상액 '미만' + '영향 없음')의 응답률이 각각 30% 이상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분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잠식된 것으로 보인다 설명
  -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은 사업주의 '현물급여 지급 실태'에 관한 과거 시계열 참고자료를 요청
    - \* 연구진이 과거 시계열 자료 확인 예정



### ■ 근로자 소득의 가게 내 역할 항목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약 50%가 주소득원이라 응답한 결과를 볼 때, 근로자 소득이 본인뿐 아니라 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지적하고, 근로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자료를 요청
    - 공익위원은 소득의 가게 내 역할별로 최저임금 적정 인상을 수준 응답을 교차분석한 통계표를 요청
- \* 연구진이 추가 통계표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제출 예정

#### 보고2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 사용자위원은 실업 상태인 저임금근로자는 소득분배율 산출에서 제외되는지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았던 '20년의 소득분배율은 오히려 더 개선된 이유를 질의
  - 연구진은 근로소득에 대한 분배율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실업자는 분석에서 제외되며, '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상태가 된 저임금근로자가 분석에서 제외된 것도 소득분배율의 개선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답변
- 공익위원은 명목임금상승률 예측치를 구할 때 취업자 증가율도 올해 수정된 전망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
  - 연구진은 한국은행이나 KDI의 수정된 전망치를 사용해보았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한국노동연구원 자료가 공신력을 가지므로 현재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답변
- 공익위원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서 '15년, '20년 시간당 통상임금 평균값 하락이 보이는데 이는 6월의 근로가능일수의 영향일지도 모른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조사시기에 비해 공표시기가 너무 늦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제시
- 연구진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항목이 복잡하고 표본이 큰 조사이므로 그보다 가벼운 조사를 활용한다면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
- 근로자위원은 작년 통계를 사용하여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어서, 실제 2년의 시차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심의시기 조정 또는 통계자료 제공시기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 사용자위원은 현재 6월 심의는 적용시기가 9월이었던 때의 심의기간이며 관련 경제통계들은 연말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시의성 확보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공익위원은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심의기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근로자위원은 산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인상률 관련 자료 요청
  - 연구진은 분석 시 강한 가정이 다수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을 답변
  - 사용자위원은 통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자료 분석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있어 '10인 이상' 통계표 자료를 요청
  - \* 연구진이 추가 통계표를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제출 예정
- 사용자위원은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변할 수 있는데 이는 생산성의 질적 향상이 아닌 근로시간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지 질의

- 연구진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변할 수 있으나 제도적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답변

협의

####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

- 노·사 위원 모두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하지 못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21.4.20(화) 15:00~16:05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24 20층)
- 참석자: 위원 27명 중 22명
  - 근로자위원 7명(이동호, 박희은, 이정희, 정문주, 정민정, 김영훈, 함미영)
  - 사용자위원 7명(류기정, 이태희, 박복규, 김영수, 정용주, 권순종, 하상우)
  - 공익위원 8명(박준식,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윤자영, 전인, 신자은, 노민선)
- ※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대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 1. 보고사항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접수

- 요청자: 고용노동부장관
- 요청일: '21.3.31.
- 법정 심의기한: '21.6.29.

### 2. 의결사항

#### ■ 부위원장 선출

- 출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별도의 표결없이 양정열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 '20.7.27.자 고용노동부 인사발령에 의한 부위원장 공석 및 '21.3.8.자 상임위원 교체에 따른 선출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부위원장이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안건 및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안건 설명
- 출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별도의 표결 없이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관련 세부사항\*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결과를 추후 전원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

\* 생계비전문위원회 심사사항: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노사단체에서 제출한 생계비 심사(노·사단체 제출 시)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사항: 근로자의 임금실태 분석결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 노사단체의 최초 요구안 심사(노·사단체 제출 시)

## 3. 협의사항

### ■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 사임한 위원들이 담당하던 위원회에 신임위원들을 이어서 지명하는 것에 동의하여 불임과 같이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 '21.3.26.자 근로자위원 2명 위촉(박희은, 이정희) 및 해촉(윤택근, 김연홍)

### ■ 향후 일정

- 위원장은 전원회의 등 잠정적인 회의 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12대 위원 위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안내하겠다고 설명

\* 제2차 전원회의('21.5.18), 생계비 전문위원회(5월 3~4주), 임금수준 전문위원회(6월 1~2주)

- 사용자위원은 그간 전문위원회는 서울에서 개최해왔으므로, 올해도 전문위원회는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 공익위원도 사용자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모임 최소화를 위해 생계비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개최하자는 의견 제시
- 부위원장은 회의자료 상 일정과 장소는 잠정(안)이며,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변
- 위원장은 현장 의견 청취의 잠정적인 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
- \* 제12대 위원 위촉되는 대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현장방문 8개소, 권역별 토론회 3회 실시 예정
- 근로자위원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필수적이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추후 연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일치
-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질적인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2021.4월 기준)

구분	위원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생계비 전문위원회	양정열	박희은 정문주 김영훈 정민정	류기정 김영수 오세희 정용주	양정열 오은진 윤자영 이승렬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양정열	이동호 이정희 김현중 함미영 김만재	이태희 박복규 이경숙 권순중 하상우	양정열 권순원 노민선 신자은 전 인
운영위원회	박준식	이동호 박희은	류기정 이태희	양정열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21.5.18(화) 15:00~16:53
-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 참석자: 위원 27명 중 22명
  - 근로자위원 5명(이동호, 정문주, 김현중, 김영훈, 김만재)
  - 사용자위원 8명  
(류기정,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권순중, 하상우, 이오선, 박길수)
  -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노민선, 전인, 신자은, 이수연)
- ※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 1. 보고사항

## ■ 제1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접수

- 수정 · 보완 의견 제시하지 아니하여 보고안건으로 접수

## ■ 현장 의견청취 일정

- 현장방문은 '21.5.11. 제4차 연구위원회(실무진 회의)를 통해 노 · 사 합의한 바에 따라 6월 1~2주 중 사업장 4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 \* 노 · 사 각 2개소 추천
-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년에 한하여 미 실시

## 2. 의결사항

### ■ 제12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로 상임위원이 회의 진행

#### 제5조(상임위원의 직무대행)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2명의 상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회의 최초 구성 후 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거할 때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결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추천)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하였으므로 제12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차기 전원회의로 미루자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의 입장 전달
- 근로자위원 1명은 선출 절차 진행 시 퇴장하겠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전에 통보된 안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한 위원 측의 요청으로 인해 진행을 연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회 후 노·사·공익 간사 위원들이 모여서 정하자는 의견 제시  
\* 15:34 정회, 15:44 속개
- 상임위원은 정회 후 이어진 간사회의를 통해 심의 일정이 촉박(제3차 전원회의 6월 중순 예정)하고, 위원장 선출 지연 시 '22년 심의일정 차질 우려가 있으므로,  
- 노·사 위원 동의 시 예정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전달

- 근로자위원 4명(한국노총 추천) 및 사용자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나, 근로자위원 1명은 이에 반발하여 퇴장
- 사용자위원은 박준식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으며, 추가 추천은 없었음
- 공익위원은 단일 추천된 위원장 후보(박준식 위원)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표결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방법 제시
- 상임위원은 노·사·공익위원에게 위원장 후보(박준식 위원)에 대한 이의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표결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 이후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양정열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노·사·공익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표결 없이 가결
- 공익위원은 회의 종료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금일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간사위원의 결정 및 노·사·공익위원의 전원 동의로 인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  
- 최저임금법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상 반드시 선출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
- 근로자위원은 단일 추천된 후보자를 표결 없이 선출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표결 없이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 제시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위원장은 제12대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통계자료 제공 지연으로 인해 회의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 설명
- 제3차 전원회의 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관련 세부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보고 받은 후 심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의결

\* 생계비전문위원회 심사사항: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노사단체에서 제출한 생계비 심사(노·사단체 제출 시)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사항: 근로자의 임금실태 분석결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 노사단체의 최초 요구안 심사(노·사단체 제출 시)

### 3. 협의사항

#### ■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 노·사·공익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붙임 1>과 같이 전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 의 동의를 얻어 이동호(노), 류기정(사), 이태희(사), 양정열(공), 권순원(공)을 운영위원으로 지명

\*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구성 완료되었으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전문위원회 미구성(추후 민주노총 의견 반영하여 구성 예정)

#### ■ 향후 일정

- 전원회의 후 이어진 운영위원회를 통해 차기 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일정(잠정안)을 <붙임2>와 같이 결정

붙임1

전문위원회 등 구성

(2021.5월 기준)

구분	위원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생계비 전문위원회	양정열	정문주 김영훈	류기정 오세희 이오선 박길수	양정열 노민선 전 인 신자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양정열	이동호 김현중 김만재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권순중 하상우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이수연
운영위원회	박준식	이동호	류기정 이태희	양정열 권순원

붙임2	향후 일정(잠정)
-----	-----------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6.10.(목), 오전 서울	제1차 생계비전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 보고</li> <li>○ 노사단체에서 산정한 생계비 심사(노사단체 제출 시)</li> </ul>
6.10.(목), 오후 서울	제1차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임금실태 분석 결과 보고</li> <li>○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보고</li> <li>○ 노사단체의 최초요구안 심사 (노사단체 제출 시)</li> </ul>
6.15.(화), 15:00 세종	제3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전문위원회(생계비 · 임금수준) 심사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li> </ul>
6.22.(화), 15:00 세종	제4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li> </ul>

\* 상기 일정은 잠정(안)으로 노 · 사 및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

\* '21.6.3(목) 제5차 연구위원회 개최하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사전 논의 예정



##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21.6.15(화) 15:00~17:22
-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 참석자: 위원 27명 중 27명
  - 근로자위원 9명 (이동호, 박희은, 정문주, 이정희, 김현중, 이영주, 김영훈, 함미영, 김만재)
  -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오세희, 권순중, 하상우, 이오선, 박길수)
  -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노민선, 전인, 신자은, 이수연)
    - ※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 ※ 연구진 3명(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기재 교수, 연세대학교 박상연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박사)

### 1. 보고사항

#### ■ 제2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접수

- 수정 · 보완 의견 제시하지 아니하여 원안대로 접수

#### ■ 전문위원회(생계비 · 임금수준) 심사 결과 보고 · 접수

####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

- 근로자위원은 가구원 수별 생계비 분석 결과 요청

- 연구진(방통대 이기재 교수)은 보고서 60쪽에 가구원 수별로 산출한 생계비 자료가 제시되어있다고 답변
- 근로자위원회는 ① 근로자의 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② ILO 최저 임금 결정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도록 적시하고 있으며, ③ 최저 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에 의하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아닌 '생계비'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가구 생계비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위원장은 보고서 내용으로도 가구 생계비에 대한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
- 사용자위원회는 ①그간 최저임금 논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하여 진행해 온 점, ②다가구원 가구는 2명 이상이 소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논의 시 가구 생계비를 고려할 근거는 없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과 분포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임금실태 등 분석 〉

- 근로자위원회는 보고서 36쪽의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있어 '10인 이상' 통계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요청
- 부위원장은 연구진이 추가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사용자위원 측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배포하지 않았다고 설명
-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OECD 29개국 중 10인 이상 통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11개국이며, 이들은 주로 10인 미만 통계 부재로 10인 이상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 또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유사임금을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이며,
-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으므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의견 제시
- \* 사용자위원의 배포 반대로 자료 요청한 근로자위원회에 개별 전달
- 근로자위원회는 국제 비교 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보일 수 있어 요청하였다고 설명
- 근로자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률 분석 자료 제출 요청
-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되는 자료의 경우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률 분석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있어 심의자료 활용에는 부정적인 의견 제시
- 부위원장은 산입범위 관련 추가자료 분석은 사용자위원이 반대하고 있어 노·사 합의가 있어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
-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내년부터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시 해당 자료의 분석을 요청해달라는 의견 제시
- \* 이에 대한 추가 논의나 노·사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함
- 근로자위원회는 보고서 로마자 2(ii)쪽의 최저임금 미만을 수치가 범위만 사항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장애인, 가사노동자 등 최저임금 감액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도 포함된 통계인지 질의



- 연구진(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박사)은 보고서 11쪽에 '감액 적용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어 영향률 및 미만율이 약간 편의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미만율과 위반율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

###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 분석 〉

- 근로자위원회는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결과(근로자 소득의 가계 내 역할 항목) 문구 중 '근로자의 50%'가 아니라 '근로자의 60%'로 수정 요청  
\* 사무국에서 해당 근로자위원의 발언내용 확인 후 안내, 해당위원 동의 하에 원안 문구 유지하기로 함
- 근로자위원회는 보고서 로마자 22(xxii)쪽(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 항목)에 있는 사업주의 '현물급여 지급 실태'에 관한 과거 시계열 참고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 요청
  - 부위원장은 연구진이 추가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사용자위원 측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배포하지 않았다고 설명\* 사용자위원의 배포 반대로 자료 요청한 근로자위원에게 개별 전달
  - 근로자위원회는 참고자료 중 '평균 가구원 수' 통계표의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가구원 수 구간 값을 6인, 7인 이상 등으로 연장하여 산출해 줄 수 있는지 연구진에게 문의
  - 연구진(연세대 박상언 교수)은 자료 확인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  
\* 자료 요청한 근로자위원에게 개별 전달 예정

### ■ 현장방문 결과 보고 · 접수

- 위원장은 현장방문 개요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결과는 방문 기관 측 확인 증으로 차기 전원회의에서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

- 근로자위원회는 구체적인 현장방문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의견을 제시 하겠다고 답변

## 2. 의결사항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

- 노 · 사 위원 간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
- 근로자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병합하여 논의하자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회는 병합 논의에 반대

###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 생활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월급으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 사용자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이 시급으로 정하여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며, 근로자별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으로 인해 월급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급으로만 결정(월급 병기 삭제) 하자고 주장
- 근로자위원회는 시급 인상 시 이에 대응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있어 시급은 인상된다고 해도 월급은 증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회는 노 · 사 위원 간에 의견 차이가 크므로 차기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의견 제시

- 위원장은 결정단위에 대한 문구는 과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사항으로,
  - 그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관행처럼 인식되어 이해하기 쉬운 점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 노사의 주장내용이 현재 결정단위(시급으로 결정하되, 월 209시간 기준 월급액 병기)에 균형 있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 촉박한 일정 및 다른 의결사항을 고려하여 차기 전원회의 시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청

### 3. 협의사항

#### ■ 향후 일정

- <붙임>과 같이 차기 전원회의 일정 결정

### 4. 기타사항

####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관련

- 근로자위원은 일부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한 제12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대해 확인 요청
  - 부위원장은 단일 추천된 위원장 후보(박준식 위원)에 대해 표결 참여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하였음을 설명
  - 근로자위원은 투표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표결 없이 선출한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

- 사용자위원은 과거에도 위원장 선출 시 표결 없이 결정한 바 있고, 11대 위원장 선출 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의견 제시
- 공익위원은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나 운영규칙 제20조에 의하면 표결에 참여하는 위원 전원이 이의가 없으면 별도 표결 없이 가능하므로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표결방법)

① 위원회의 표결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표결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 ■ 전문위원회 결과

- 사용자위원은 전원회의 보고가 완료된 보고서(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보고서,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
  - 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보고되었기에 노·사 합의된 것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답변

\* 단, '22년 최저임금액 확정고시일(8.5. 이후) 까지 전문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원자료 그대로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나,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들을 인용하여 사용(공개 포함)하는 것은 가능

#### ■ 통계자료 제공

- 지난 전문위원회(6.10.) 및 제3차 전원회의(6.15.) 시 노·사 일방이 요청한 자료는 노·사·공익위원 전원에게 배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노·사는 추후 필요 시 통계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고, 노·사 상호 협의 후 양측 모두 동의하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으며,  
 - 향후 전문위원회 또는 전원회의 시 노·사 일방이 통계자료 요청 시 상대방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분석 및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붙임	향후 일정(안)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6.22.(화), 15:00 세종	제4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li> </ul>
6.24.(목), 15:00 세종	제5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li> </ul>
6.29.(화), 15:00 세종	제6차 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li> <li>○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li> </ul>



##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21.6.22(화) 15:00~17:19
-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 참석자: 위원 27명 중 27명
  - － 근로자위원 9명  
(이동호, 박희은, 정문주, 이정희, 김현중, 이영주, 김영훈, 함미영, 김만재)
  - －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오세희, 권순종, 하상우, 이오선, 박길수)
  - －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노민선, 전인, 신자은, 이수연)
  - ※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 1. 보고사항

### ■ 제3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접수

- 사용자위원은 지난 3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 의결 시 ‘사용자의 지불능력’도 결정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분석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수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위원장에게 질의
  - － 위원장은 노 · 사가 합의하여 요청한 자료에 대해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 － 근로자위원은 기업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지불능력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2. 의결사항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

####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논의 시작과 동시에 정회\*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에 대해 논의
  - \* 15:27 정회, 15:53 속개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환산액을 병기한다.”로 결정단위를 정하기로 운영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며,
  - － 다른 위원들에게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
  - － 사용자위원은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지만 현대사회의 변동성(지급기준: 시급, 지급주기: 주 단위)을 고려하여 시급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제시
  - － 근로자위원도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정하면(월급환산액을 병기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위원 전원인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동의하여,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표결 없이 의결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용자위원은 ①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규정이 있고, ② 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및 근로조건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것을 낙인효과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상공인 분포가 높은 업종 1~2개를 정하여 시범적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해보자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은 ①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고, ② 업종별 구분 적용하여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되면 해당 업종 근로자들의 삶이 어려워지므로 구분적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결과 중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 위원장은 정부연구용역결과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있어 자유롭게 확인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은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① 최저임금제도 취지상 구분적용의 타당성이 없고, ② 저임금 업종에 대해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으며, ③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자료가 없어 구분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는 설명과 아울러,
  - 최저임금을 최저선으로 정하고, 필요 시 노·사 간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 미만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현재의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으며,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 근로자 가구의 생계비도 줄어들게 된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나 그 원인이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하청 거래관계, 경제민주화,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제시
- 근로자위원은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하려면 어떤 업종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 근거로서 타당성 있는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2017년도의 경우 5~6개 업종(이미용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 대해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 측 주장이 있었으나 미만을, 부가가치율, 영업이익률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바 있다고 설명
-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업종별 미만을, 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을 제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 이것은 최저임금법 제24조에 따라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은 2017년 당시 TF 결과는 통계자료의 부실 등 문제점이 있으며,
  - 2019년 최저임금 논의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 별도의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올해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공익위원(제도개선 TF에 연구진으로 참여)은 당시 TF 논의 결과에 대해 업종별 구분적용 실시 여부에 대해 연구진 18명이 투표한 결과,

- 다수의 의견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었다고 답변하면서,
- 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단일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워 모두 명시하였고, ② 현장 인터뷰 시 근로자의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③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도 근로하겠다는 수요도 많았다는 사실과 함께 ④ 구분 적용의 지표로서 미만율, 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에 대한 통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
- 근로자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 하였으나,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 취지에 따라 연령별·규모별 차등 적용,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등 적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의견 제시

### (3)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 최초제시안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 위원장은 법정심의기간(6.29.)을 고려하여 제5차 전원회의(6.24.) 시 최초제시안이 마련되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에 요청

## 3. 기타사항

### ■ 최저임금 미만율·영향률

- 근로자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용역 분석결과를 보면, ① 감액 적용 근로자(수습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가구 내 무급근로자, 장애인 적용제외 인가대상 근로자 등) 식별이 불가하고, ② 운수업 등에서

실제 근로시간보다 소정 근로시간을 낮게 정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미만율이 과대계상된다고 주장하며,

- 특별위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① 2016년부터 5년간 장애인 적용제외 인가대상 근로자 통계자료와 ② 현정부 국정과제(장애인에 대해 보편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한 자료 요청
- 사용자위원회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미만율 산출 시 주휴수당 미지급을 가정하므로 미만율이 과소추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특별위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검토 요청
- 위원장은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특별위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요청



##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21.6.24(목) 15:00~19:03
-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 참석자: 위원 27명 중 27명
  - 근로자위원 9명  
(이동호, 박희은, 정문주, 이정희, 김현중, 이영주, 김영훈, 함미영, 김만재)
  -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오세희, 권순중, 하상우, 이오선, 박길수)
  -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노민선, 전인, 신자은, 이수연)
  - ※ 특별위원 2명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중소기업정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 1. 의결사항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1)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

- 사용자위원은 2017년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에 대해 당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측은 인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
- 논의 결과에 대해 취사선택하여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근로자위원 측에 업종별 구분 적용 외 다른 논의 결과(산입범위 확대 사안 등)도 모두 수용하는 것인지 질의

- 근로자위원은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논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며, 심의사항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인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하며,
  -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제도개선 TF 논의는 이원화(전문가 논의와 그 논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 간 논의)되어 이루어졌고,
  - 산입범위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에 대해 노·사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구분 적용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 역시 노·사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의 다수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임을 주장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제4조가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근로자위원 측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아 대부분의 중소·영세 업종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으나(영향률과 미만을 이 2~3% 수준)
  -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되어 구분 적용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하면서,
  - 사용자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도입되지 못하는 구분 적용에 대해, 1988년도 이후 적용사례가 없으므로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지난 회의 시 근로자위원이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적용하자는 것이 최저임금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 세계적으로 단일 적용하는 국가보다 업종별·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하는 국가가 더 많은데 그 국가들이 모두 최저임금제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질의
- 근로자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를 보더라도 40개국 중 절반 이상이 단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
- 근로자위원회는 구분 적용의 필요성만을 제기하지 말고 구분 적용의 대상 업종, 방법 그리고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회는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 전원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자료를 구축할 것을 건의해왔으나 근로자위원 측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
  - 근로자위원회는 노측도 가구 생계비 자료에 대해 사무국에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측도 자체적으로 자료 구축을 하여 주장하라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회는 현재 고용부에서 조사 중인 통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계조사가 필요함을 설명
  - 새로운 통계사업을 도입하려면 인력과 예산의 추가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 또한, 저임금노동자로 구분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통계를 실시할 경우 또다른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

- 공익위원은 구분 적용의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위원회에게 특정 업종에 대한 감액 적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종별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표적인 외국 사례\*를 설명

\* 호주(국가 단위 최저임금 결정하고 숙련 수준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음), 일본(지역 단위 최저임금 결정하고 노·사 합의로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음), 영국(25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구분)

- 사용자위원회는 구분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TF를 구성하여 논의하자고 제안
  - 공익위원은 구분 적용의 필요성만 가지고 의사 결정하기 어렵고, 심의 기한이 촉박한 현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설명
- 위원장은 1988년도에 업종별 구분 적용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 참고하기 어려우며,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향 제시
  - 사용자위원회는 국회가 아닌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판매원가, 운영비, 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이 어려운 업종을 구분하고, 해당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하자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기준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라고 하면서,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근로자가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근거라고 주장



- 사용자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고,
  - － 최저임금이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최저임금도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 －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비중은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출 구조가 다르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 근로자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응답자 총 521명 중 235명이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인데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제기
  - － 사용자위원회는 조사 시점에 근로자가 없다고 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계속 없었던 것은 아니며, 횡단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
-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설치 관련,
  - －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3조 제3호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 － 지불능력, 규모, 미만을 등의 기준을 토대로 취약업종을 유연하게 선정하여 최저임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 전문위원회 설치를 요청
  - － 위원장은 구분 적용의 문제, 통계자료 구축 등 최저임금제도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위원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 － 공익위원회는 운영규칙상 전원회의에서 합의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
- －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정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연구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
- 이후,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하여, 장시간 동안 노·사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제6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
  - － 위원장은 제6차 전원회의(6.29.)에서 노·사 대표위원의 발언을 듣고 16시경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설명

## (2)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 최초제시안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 － 위원장은 제6차 전원회의(6.29.)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에 최초제시안 제출 요청



##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21.6.29(화) 15:00~18:41
-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 참석자: 위원 27명 중 27명
  - 근로자위원 9명  
(이동호, 박희은, 정문주, 이정희, 김현중, 이영주, 김영훈, 함미영, 김만재)
  -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오세희, 권순종, 하상우, 이오선, 박길수)
  -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노민선, 전인, 신자은, 이수연)
  - ※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대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 1. 보고사항

#### ■ 제4~5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접수

- 수정 · 보완 의견 제시하지 아니하여 원안대로 접수

### 2. 의결사항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

##### (1)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

- 근로자위원은 위원장에게 안전에 대한 개인 발언 자제를 요청하고 향후 회의 진행 및 운영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의견 제시
-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 전 노 · 사 대표위원에게 발언 요청
-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의 수준 못지않게 구분 적용도 중요한 문제이며,
  - 시대변화에 따라 통계 기준을 세분화하여(소상공인과 대기업 · 중견기업 구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 관련 통계의 부재 문제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 근로자위원은 발언하지 아니함
- 이후 출석위원 전원(총 27명)이 참석하여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안전\*은 부결
  - \* 안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액으로 단일 적용함
- 위원장은 표결 결과 발표 이후, 최근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임금 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건설업 등에서 정하는 상생임금 등
  -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므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공익위원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전국 단위의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는 소수이며, 일본이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업종별 구분을 최소화\*하는 추세라고 설명
  - \* 1개 업종(비금속광물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구분 적용

-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도 제조업에 대해 구분 적용하였다가 한해 만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의 주요 근거는 저임금근로자 축소 및 사회적 연대 실천이었다고 하면서, 논의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
- 과거 우리나라와 외국의 구분 적용 사례, 경제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은 표결 전 소상공인·영세업종에 대한 절박함을 수차례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음에도 부결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 위원장에게 향후 구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

## (2) 최저임금 수준

- 노·사 양측은 최초제시안을 제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함

### ●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 시간급 10,800원(전년 대비 23.9% 인상)

\* 월급 환산액 2,257,200원(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

#### - 제시 근거

- 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함
- ②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 산정 필요
- ③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필요(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도모)
- ④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 인상분 잠식
- ⑤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 달성한 반면, 대면 서비스, 중소·영세업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삶이 어려워진 상황 고려해야 함
- ⑥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필요

### ● 사용자위원 최초제시안: 시간급 8,720원(전년 대비 동결)

#### - 제시 근거

- ①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 초과(G7 상위권)
- ②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
- ③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 ④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함
- 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 ⑥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감소 뚜렷)

- 근로자위원은 사측에서 역대 삭감안 또는 동결안 제시한 경우가 약 20회 정도에 이른다며,
  - 이번에도 사측에서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을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동결이 타당하지 않다면 경제위기 상황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20~30%, 심하게는 80%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 주장은 타당하지 반문
- 사용자위원은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운영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② 최저임금 인상 시 시급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예컨대 4대 사회보험료, 퇴직금)이 증가하며, ③ 근로자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가 증가하여 근로자의 몫(실수령액) 역시 감소할 수 있고, ④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

- 근로자위원은 시급제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을 설명하면서
  - － ①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4대 사회보험료 및 생계비(예컨대 사교육비)는 증가하므로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다름없고, ②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③ 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산업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노측에서 제시한 인상액과 전년 대비 인상률에 대해 확인 요청(인상액을 10,805원으로 수정하거나 전년 대비 인상률을 23.8%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
- 위원장은 노·사 양측 입장을 서로 정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전원회의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

### 3. 협의사항

#### ■ 향후 일정

- <불임>과 같이 차기 전원회의 일정 안내

불임	향후 일정(안)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7.6.(화) 세종	제7차 전원회의	○ 제6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7.8.(목) 세종 (잠정)	제8차 전원회의	○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21.7.6(화) 15:00~18:22
-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 참석자: 위원 27명 중 27명
  - 근로자위원 9명  
(이동호, 박희은, 정문주, 이정희, 김현중, 이영주, 김영훈, 함미영, 김만재)
  -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오세희, 권순중, 하상우, 이오선, 박길수)
  -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노민선, 전인, 신자은, 이수연)
  - ※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 1. 보고사항

### ■ 제6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접수

- 근로자위원은 최초안의 제시근거 중 유사내용을 병합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의해 실질 인상분 잠식」 문구 추가 요청
- 위원장은 발언내용 확인하여 수정 · 보완하겠다고 답변

- (수정 전) ●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의 「제시근거」
- ③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필요
  - ④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도모

- (수정 후) ●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의 「제시근거」
- ③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필요(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도모)
  - ④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의해 실질 인상분 잠식

## 2. 의결사항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 의결(「최저임금 수준」)

-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기준과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내용(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 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을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며, 이를 감안하여 최초제시안과 함께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것이니 노 · 사가 같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 몇 분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어떨때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니 경제민주화 정책을 부대결의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 모순을 보이는데, 노동계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길 바란다며,

-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뿐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있으므로 최저임금 결정 시 지불주체(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긴급실태조사에 의하면 ①순이익이 35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70%로 3인가구 생계비 약 449만원과 비교 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②부채비율이 30~70%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약 50%라면서 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
  - 근로자위원은 600만 자영업자 중에 약 75%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최저임금법과 무관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고용원의 변동성이 심한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를 감안하여 시계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시 급여 인상분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 주휴수당, 퇴직연금 적립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 경력자 임금 또한 연달아 상승하게 되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수단(예컨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기업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다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비율(2인 가구의 60%, 3인 가구의 78%, 4인 가구의 89%)이 높음에도,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 OECD 국가 중에서도 가구 생계비를 명시적인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OECD 국가 절반은 생계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생계비를 고려하는 국가들은 주로 1인 가구나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

-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규제(중대재해법, 주52시간 적용)로 인한 간접비용이 많아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 제시

####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한 노·사 위원들의 답변〉

-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흐름(고임금 업종의 수도권 집중)과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생활비·물가 상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은 지역 일자리 공동화 현상에 대해 공감하며 상생형 일자리 구축 등으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측에 최저임금 동결 시 K커브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인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 외 기업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질문
  - 사용자위원은 5월에 실시한 경총·중기중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 시 41%의 사업주가 고용을 감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하면서,
  - 최저임금 동결 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유지가 가능할 것이므로 오히려 K커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 측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현재의 상황에서 바람직한지와 근로자 가구의 생계보장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

-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1만원이라고 주장하며,
- 사회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노동정책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
-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측에 지불능력을 근거로 동결을 주장하는데,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율, 생계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인상분이라도 제시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질문
  - 사용자위원은 올해의 명목적인 지표만을 단순히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의 소폭 인상 요인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 '18년과 '19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노동시장이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결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변
-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 측에 최초제시안의 근거인 가구 생계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데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조항과 배치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 요청
  - 근로자위원은 금년 최초제시안 근거는 1인 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가구 생계비는 참고로만 제시하였으며,
  - 최임위에서 제공한 자료(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원수가 평균 2.97명이므로 노측은 앞으로도 계속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답변
-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측에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책정 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분배율을 비교할 때 쓰는 지표인데 이를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문
  - 사용자위원은 유사 근로자 임금 지표는 소득분배 지표 뿐만 아니라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확인하는 지표로도 오랫동안 써왔다고 답변
-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 측에 최저임금 인상을 산정 시 근로자 가구의 생계비 충족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음에도 생계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곱한 이유에 대해 질문
  - 근로자위원은 생계비와 임금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며,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합하여 노측이 계산한 값인 5.8%와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임금상승률 전망치가 5.5%가 유사하다고 답변
-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 측에 생계비 평균을 최저임금(안)에 적용한다면, 이미 소득분배 개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소득분배개선치 1%를 또 고려한 이유에 대해 질문
  - 공익위원들이 과거에 활용한 소득분배개선치 4년간의 평균이 5.1%이나, 인상폭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1%만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함
-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2개월간 2%대 상승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동결될 경우 사실상 물가상승률만큼 삭감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최초제시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설명 요청
  - 사용자위원은 물가상승률은 근로자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지표임을 인정하나, 물가는 근로자의 생계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불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

-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일부 영세 소상공인만 조사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 요청
  -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 대표 업종(숙박·음식·도소매·개인서비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대상에 제한(매출액이나 인원수 등)을 두지 않았다고 답변
-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 측에 5월 통계자료 기준으로 고용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청
  -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0개월 연속 감소, 중소 제조업 고용의 15개월 연속 감소, 숙박·음식업·도소매업의 고용 감소, 중소·소상공인 전문소매점 급감과 무점포 소매업 급증
  -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과 고용의 연관성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자료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 '19년과 '20년 최저임금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었음에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 최근 고용감소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원인이라고 주장

### 3. 협의사항

#### ■ 향후 일정

- <불임>과 같이 차기 전원회의 일정 안내

### 4. 기타사항

#### ■ 현장방문 관련

- 근로자위원은 인천 사업장 방문결과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납품단가는 대체로 인상되지 않았다고 사업주가 답변하였다고,
  -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원·하청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등)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사업주는 원청이 납품단가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 해당 사업주에게 다시 확인한 결과 원청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납품단가를 쉽게 올릴 수 없어 해당 사업장도 임금을 올리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은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
- 공익위원은 접하기 어려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으며, 내년도 현장방문 확대 실시 요청

#### ■ 최저임금 미만을 · 영향률

- 근로자위원은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특별위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요청한 ①2016년부터 5년간 장애인 적용제외 인가대상 근로자 통계자료와 ②현정부 국정과제(장애인)에 대해 보편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사무국에는 ③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인상분 잠식에 대한 통계자료 확인 요청



－ 특별위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①장애인 적용제외 인가 현황에 대해 8,000~9,000명 정도(2020년 9,060명, 2019년 9,000명, 2018년 9,413명)라고 설명하고,

－ ② 현정부 국정과제 추진 경과에 대해 2019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조정회의에서 장애인단체와 정부(복지부, 고용부)가 협의하여 직업재활시설에 전환프로그램\*을 작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며 현재 장애인부모단체 등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주장이 있어 논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

\* 직업능력개발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년간 지원

－ 부위원장은 지난 제3차 전원회의에서 협의된 자료제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분석자료 요청에 대해 사용자위원 측 동의가 있으면 제공할겠다고 답변

\* 노·사 간 협의 결과, 노·사의 통계자료 요청 시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확인 후 분석 및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붙임	향후 일정(안)	
일시(장소)	진행일정	내용
7.8.(목) 세종	제8차 전원회의	○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7.12.(월) 세종 (잠정)	제9차 전원회의	○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21.7.8(목) 15:00~18:00
-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 참석자: 위원 27명 중 27명
  - － 근로자위원 9명  
(이동호, 박희은, 정문주, 이정희, 김현중, 이영주, 김영훈, 함미영, 김만재)
  - －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오세희, 권순중, 하상우, 이오선, 박길수)
  - －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노민선, 전인, 신자은, 이수연)
  - ※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 1. 의결사항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최저임금 수준」)

-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제2차 제시안(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함

#### \* 노·사 제2차 제시안 및 근거

- 근로자위원 제2차 제시안: 시간급 10,440원(전년 대비 19.7% 인상)
  - \* 전 차수 제시안(시간급 10,800원) 대비 360원 인하
  - － 근거: 3인 가구 생계비 중 주소득원 비중 환산금액(2,028,988원) × (임금인상 전망치 5.5% + 소득분배개선분 2%)로 산출한 월환산액(2,181,162원)을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
- 사용자위원 제2차 제시안: 시간급 8,740원(전년 대비 0.2% 인상)
  - \* 전 차수 제시안(시간급 8,720원) 대비 20원 인상
  - － 근거: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불변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0.2% 증가
-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이 제2차 제시안의 인상률(0.2%, 20원 인상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과 발언 등을 이유로 퇴장
-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20원 인상안은 정부발표 수치(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경제성장률, 물가전망률, 고용률 등)에 비해 너무 괴리가 커서 논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 정부의 경제지표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장(5인 미만)의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은 이해하나,
  - －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고려하여 제3차 제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 측에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지불주체인 자영업자가 추후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 －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를 보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고려해줄 것을 요청

- 사용자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구조의 급변(플랫폼 산업, 온라인 쇼핑몰 급증 등) 및 직업 순환 현상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 올해 6월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이슈노트)에 의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약 30% 정도가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나머지는 미취업 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되었다고 답변
- 공익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하한은 근로자의 생계비이며, 상한은 기업의 지불능력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은 항상 그 사이에서 결정되어왔으며,
  - 매년 결정된 최저임금은 당해연도에 사회가 합의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 올해에도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물가인상률 수준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사용자 위원 측에 질의
-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소상공인의 한계를 넘어섰기에 소상공인의 정서적인 저지선은 동결이지만,
  -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한다는 취지에서 20원의 인상안을 제출하였다고 답변
- 근로자위원회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자가 더 어려운 현실(최저임금 상입범위 확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이라고 하면서,
  -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내수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경제민주화, 산업구조 개편 등)을 논의하여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공익위원회는 과거 우리의 정책목표나 세계 각국의 사례를 봐도 소득 분배율 수준의 목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0% 정도이며,

- 현재 우리나라는 약 63% 수준으로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하면서,
- 생산성 증가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상승속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근로자 측의 주장은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겠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 인상률은 그 근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자위원 측에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공익위원회는 사측 제2차 제시안의 근거(1인당 노동생산성은 '19년 대비 '20년 0.2% 상승)와 관련하여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이나,
  - 1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보면 '19년 대비 '20년 2.1% 상승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3차 제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사용자위원회는 노동생산성 통계자료는 인당 노동생산성에는 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에는 인당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하며,
  - 최저임금 근로자의 84%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므로 어느 수치가 적절한 것인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답변
- 근로자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모임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없었던 것이지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 공익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금액(8,740원)의 영향률은 1.4%\*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 \* 심의자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중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 영향률 1.4%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의 최대치가 8,785원이므로 다음번 수정안 제출 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고려해 달라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은 단순히 인상률로만 보면 적을 수 있으나 금액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

\* 현재 1% 인상('21년 8,720원\*1%=87.2원 인상)은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2% 인상('11년 4,320원\*2%=86.4원 인상)과 유사한 효과

-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 측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게 되므로, 생계비에 명목임금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은 이해하나, 소득 증가분만큼 소비가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 명목임금상승률 수치를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안 산출에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비성향을 반영해달라는 의견 제시
- 위원장은 조속히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9차 전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2. 협의사항

### ■ 향후 일정

- '21.7.12.(월) 15:00, 세종, 제9차 전원회의 실시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 일시: '21.7.12(월) 15:00~00:00
- 장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정부세종청사 11동 408호)
- 참석자: 위원 27명 중 27명
  - 근로자위원 9명  
(이동호, 박희은, 정문주, 이정희, 김현중, 이영주, 김영훈, 함미영, 김만재)
  -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이태희, 박복규, 김문식, 오세희, 권순중, 하상우, 이오선, 박길수)
  -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양정열, 권순원, 이승렬, 오은진, 노민선, 전인, 신자은, 이수연)
  - ※ 특별위원 2명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

## 1. 의결사항

###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최저임금 수준,)

-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함

## \* 노·사 제3차 제시안 및 근거

- 근로자위원 제3차 제시안: 시간급 10,320원(전년 대비 18.3% 인상)

\* 전 차수 제시안(시간급 10,440원) 대비 120원 인하

- 근거: 명목임금상승률 예측치(5.5%) + 소득분배 개선치(4년간 평균, 5.1%) +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잠식분 개선치(7.7%)

- 사용자위원 제3차 제시안: 시간급 8,810원(전년 대비 1.0% 인상)

\* 전 차수 제시안(시간급 8,740원) 대비 70원 인상

- 근거: 현 정부(2018~2021)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치

- 사용자위원은 제7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보완의견으로 산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아니한 산업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숙박, 음식, 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 측에 소득분배개선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청
  - 근로자위원은 지난 4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소득분배 개선치의 평균\*이라고 답변
    - \* '17년(11.3%), '18년(6.7%), '19년(0.5%), '20년(2.0%)
-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잠식분 개선치(7.7%)에 대해
  - 당시 조사를 실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표현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기대이익이 감소될 수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240만명 중 약 8%에 해당하는 19만 7천명 가량이며,

- 이들의 기대이익이 전부 감소하면 7.7%까지 감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는 의견 제시

- 근로자위원은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생산성이 낮은 산업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기업의 지불능력은 참고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아니라고 하며,
  -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는 것 외에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수도 추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물가상승률의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굉장히 부담(원자재값 상승 등)되는 상황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노·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 마련을 위해 정회 요청
  - \* 정회(16:38), 속개(17:33)
- 노·사 양측은 회의 속개와 동시에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함

## \* 노·사 제4차 제시안 및 근거

- 근로자위원 제4차 제시안: 시간급 10,000원(전년 대비 14.7% 인상)

\* 전 차수 제시안(시간급 10,320원) 대비 320원 인하

- 근거

- ①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2,084,332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
- ② 명목임금상승률 예측치(5.5%) + 소득분배 개선치(1.5%) +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잠식분 개선치(7.7%)
- ③ 현 정부의 일만원 공약 및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

- 사용자위원 제4차 제시안: 시간급 8,850원(전년 대비 1.49% 인상)

\* 전 차수 제시안(시간급 8,810원) 대비 40원 인상

- 근거: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 근로자위원은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로 주요 식료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 사용자위원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인상률은 7.35%인 반면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6%, 경제성장률은 2.54%라고 하면서,
    -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
  - 공익위원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노·사 양측에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보라고 하면서,
    - 사측에 대해 제4차 제시안(시급 8,850원) 기준 월 환산액은 185만원 정도인 반면에,
    -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소득 근로자(실태생계비 분포상 3분위 또는 4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생계비는 160만원 내외 수준이라고 하면서,
    - 과연 185만원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근로자의 생계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노측에 대해 최저임금이 제4차 제시안(시급 10,000원)이 될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70%를 넘는데\* 이 수치가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71.3%),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73%)
-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의견 표명과 함께 공익위원회에 심의촉진구간 제시 요청
- \* 정회(18:22), 속개(20:20)
- 공익위원은 회의 속개 후 공익위원 간 회의를 통해 도출한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설명

####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

구분	금액	인상률	산정근거
하한선	9,030원	3.6%	물가상승률(1.8%) + 생계비 개선분(1.8%)
상한선	9,300원	6.7%	경제성장률(4.0%) + 물가상승률(1.8%) - 취업자 증가율(0.8%) + 생계비 개선분(1.7%)

- 노·사 양측 모두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에 대한 유감 표명
  -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대하여 퇴장
  -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5차 제시안 제시를 요청하면서 정회
- \* 정회(20:41), 속개(23:09)
- 근로자위원은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 내의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의견 표명과 함께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 요청
  -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겠으나, 공익위원 및 위원장이 적절히 판단하여 제시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 제시
- \* 정회(23:15), 속개(23:35)
- 정회 후 공익위원은 단일안\*을 제시하고, 위원장은 단일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
  - 이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

#### <공익위원 단일안>

시간급 9,160원(올해 대비 440원 인상, 5.1% 인상)
(제시근거) 경제성장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1.8%) - 취업자증가율(0.7%)

-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기권자 포함)이 출석하여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가결(23:55)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

(단위: 시급, 원 / 전년 대비 인상률)

구분	2021년 최저임금액	2022년 최저임금 제시안			
		최초 (6.29.)	제2차 (7.8.)	제3차 (7.12.)	제4차 (7.12.)
근로자측	8,720	10,800 (23.9%)	10,440 (19.7%)	10,320 (18.3%)	10,000 (14.7%)
사용자측		8,720 (0%)	8,740 (0.2%)	8,810 (1.0%)	8,850 (1.49%)

# 2021\_\_\_\_\_

## 최저임금위원회 활동보고서

이 책을 만드는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식

상임위원 양정열

사무국장 정원희

책임편집인 이해웅

편집인 고대완



